



# 문화매일신문



제1528호

2024/2/1/Thu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단속 암행漁使 출두요!

- 수품원·도·시·군·해경 합동 기동반 가동으로 유통질서 확립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산물 특별점검을 한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에서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큰 수산물에 대해 특별점검을 나선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도내 22개 시군 등 합동 단속반을 구축하고 수산시장, 음식점, 제조유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친다.

특별점검 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용·물용으로 인기 많은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과메기 등이며, 특히 이번 기간에는 배달 음식

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도 병행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원동해지역본부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부정 수산물 Zero 실현"의지를 표명하고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전남도-시군, 고향사랑 실천 붐 협업 강화

미래 전남 발전 원동력 마련 위한 도-시군 실무회의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31일 도청 왕인실에서 고향사랑 실천 붐 조성 위한 도-시군 실무회의를 열어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 200억,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 명 모집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3억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고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43만 명을 모집한 고향사랑의 응원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전남도는 제도 시행 2년차인 올해 기부자가 공감하고 자긍심을 느끼도록 지정 기부 등 기업사업 발굴과 추진에 힘써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다양한 서포터즈 할인 가맹점을 발굴해 관광 활성화는 물론 농수축산물 판매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올해도 도내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서포터즈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 발굴해 더 많은 서포터즈가 지역을 방문,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로 했다.

실무회의에선 '지방소멸위기대응 관

계인구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도 진행됐다. 강연자로 나선 김종익 (사)상생나루 이사장은 "지역 소멸은 중국적 국가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계인구 형성이 필연이고, 전남도의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고향사랑기부제와 결부해 더 큰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전국 1위와 서포터즈 43만 명 달성은 도와 시군의 유기적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 선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도와 시군이 원팀이 돼 고향사랑 실천에 더욱 매진하자"고 말했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도내 농수축산물 판매 촉진, 관광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전남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100만 명 모집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모집 1년여 만에 가입자 43만 명을 돌파했다.

박종배/기자



## 경기도 김동연 지사, 설 앞두고 전통시장 잇따라 방문. "기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통시장 민생현장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민생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성남시 중원구 은행시장과 남산성시장을 찾아 농산물, 육류, 가공식품 등을 구매한 뒤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운영한 국회의원국회와 전석훈·국종범 도의원, 고병용·윤혜선·조우현·김유환 성남시의회 의원, 조우식 성남시 상인연합회장과 상인회장들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각별한 마음을 전하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전보다 못하다는 말씀을 하

셔서 마음이 무거웠다"며 "추경과 올해 예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다들 기운 내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24년 예산안에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40억 원 등을 편성한 바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일 파주 금촌통일시장과 26일 안양 관양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는 2월 2일에는 남양주 장현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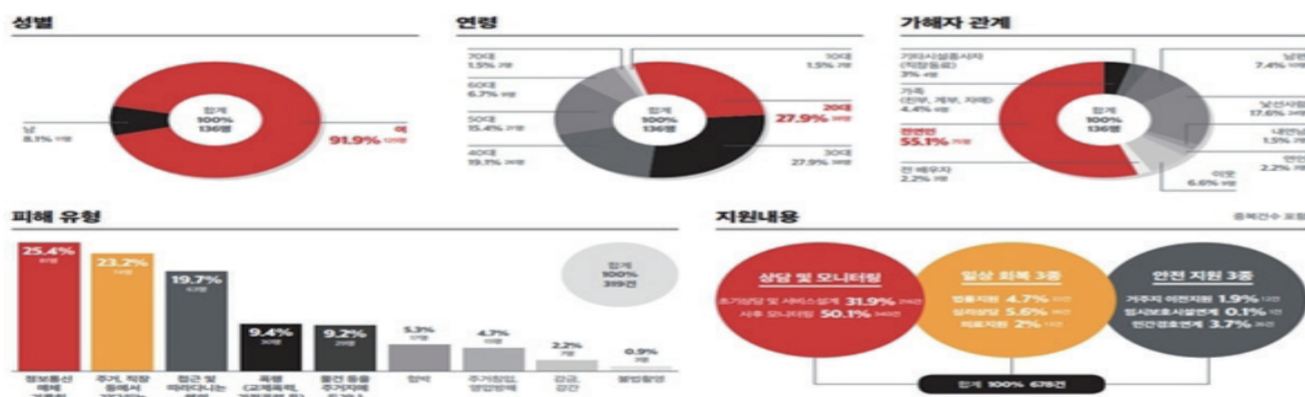


## 1원씩 송금하며 협박, 중고거래 앱으로 접근... 서울시, 스토킹 추가 피해 14건 막아

전담조직 출범 4개월 간 민간경호, 이주, 법률·심리 등 136명에 678건 지원

### 서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운영실적

지원 대상 총 136명, 지원 건수 678건 (민간경호 119명, 이주 11명, 법률·심리 6명, 기타 2)



# A(20대)는 전 연인이었던 B로부터 성폭행, 불법촬영 등 피해를 입고 이별 의사를 밝혔지만 B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을 지속했다. 두려움을 느낀 A가 112에 신고하고 통신매체를 차단하자 B는 금융서비스 앱으로 1원씩 송금하며 '전화바야' '당장나와' '지금안 나오면' '불질러버린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했다. B가 이런 식으로 송금한 횟수는 무려 120회에 달했다.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A에게 가해자를 재신고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우선 긴급 거주시설에 입소하도록 안내한 뒤 이주비를 지원해 신속히 거주 이점을 통해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혼자서 수사 과정을 진행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A에게 변호사도 연계 지원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작년 9월 출범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통해 지난 4개월여 동안 스토킹 피해자 136명이 지원과 보호를 받았다. 민간경호, 이주지원, 법률·심리지원 등 총 678건을 지원했다.

피해지원(총 678건)은 상담 및 사례관리 556건, 심리·치유지원 38건, 법률·소송지원 32건, 의료지원 13건, 민간경호 등 안전지원 39건 등이었다.

서울시는 경찰과의 하이라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으로 연계, 초기상담과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작년 9월 출범하고(운영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경찰과의 공동협력 협약을 통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사업단에서는 피해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민간경호 서비스·이주비 지원)과 '일상 회복 지원 3종'(법률·심리·의료)을 지원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스토킹 추가 피해를 14건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이별을 고한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한 가해자를 재신고했다. 금융서비스 앱을 통해 1원씩 총 120회에 걸쳐



송금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가해자도 재신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가해자 출소 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배치해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온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경찰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가 스토킹을 지속할 경우 '재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거나, 다시 신고하는 것이 두려워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등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왔다.

'간밤에 별일 없었는지?' 묻는 상담원에게 가해자가 다시 찾아왔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피해자의 얘기에 재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경찰과 협력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었다.

또한, 가해자의 갑작스런 출소로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우선 긴급하게 보호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비 지원을 통해 이사가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꼼꼼한 사례관리와 안전대책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렇듯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기존의 전형적인 수법에서 금융이나 중고거래, 배달 앱 등으로 접근해 협박하는 등 신종 수법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감금,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의 정보통신매체를 차단하자 가해자가 접

근금지 중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고자 신종 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배달을 온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스토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스토킹 피해 외 강력범죄 등 중범죄를 동반한 사례는 총 64명(72건)으로 47%를 차지했다. 중복 피해 중 가장 많은 피해는 폭행 41.7%(30건), 협박 23.6%(17건) 순이었고, 감금, 강간 피해도 9.8%(7건)에 달했다.

이에 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다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보조사업으로 시범 운영해왔던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2월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협박, 폭력, 살인 등으로 인해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 시 공공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여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산재해 있던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한다.

시는 개관 이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법률, 심리, 의료, 이주 지원 관련 기관과 공동협력 협약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관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을 50명으로 확대(2023년 20명)한다.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거주시설'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긴급거주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 가능하며, 이후 장기보호시설(최대 6개월)로 연계해 거주할 수 있다.

2023년 서울시 스토킹 보호시설에서 총 88명의 피해자를 보호했고, 심리·상담, 수사·법률, 의료, 자립지원 등 총 3,600건을 지원했다.

피해자의 신분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서비스는 대상자를 3배로 확대(2023년 20명→2024년 60명)하고 기간도 기존(7일)보다 연장할 계획이다.

2023년도에 실시한 민간경호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전원이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함'을 느꼈고, '민간경호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원 기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이용자(67%)가 많았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안심비상벨을 배부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안전지원을 위해 음성인식 비상벨, 가정용 CCTV 등의 안심장비 지원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3년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 373명을 대상으로 안심장비를 지원하여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안전을 도모했다.

김선순 서울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신종 수법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신종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센터 개관과 함께 민간경호, 이주지원 같이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보다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따뜻한 마음으로 펼쳐지는 사랑의 손길, 복지시설 이웃들에게 전하다

## 구미출신 정근수 경상북도의원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경상북도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경북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각 일 정별로 관내 구호·자선기관을 찾아 명 절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지난 31일, 경상북도의회를 대표 해 정근수 경상북도의원이 구미시 소재 선주요양원을 찾아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소중 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시설 종사자들 을 격려하고 이웃사랑의 소중함을

강조하였다.

정의원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의 여러 곳을 직접 확인하 고 시설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 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하였으며 특히, 겨울철 안전관리에 대한 당부의 메시 지와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 심을 담아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윤근수/기자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대구의료원 현장방문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구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 당부 대구의료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성, 신뢰성 강조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 306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월 31일(수) 대구의료원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 추진 상황 및 의료시설을 점검하고 지역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유일 거점 공공의료기 관으로서 힘겨운 업무를 수행한 대구 의료원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팬데믹 이후 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추 진 중인 의료인력 충원, 공공·응급 의 료기능 강화, 통합외래진료센터 건 립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신종감염병 유 입·확산에 대비한 전환형 격리병 동(68병상, 2025년 준공 예정) 및 의 료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을 위해 건 립 중인 대구의료원 원스톱 통합

외래진료센터 건립(2026년 준공 예 정)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구의료원이 대구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 의했다.

김재우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을 겪으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 역할 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며, 코 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한 대구의 료원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 인사 를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신종감염병 대응 준비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한편, 팬 데믹 이후 대구의료원 운영의 정상화 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공 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함께 의료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최 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 “존중하는 환경 조성으로 충남교육 발전시켜야”

##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 효과적 업무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제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제 349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받 고,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 견을 제시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주요 업무계획을 매년 반복하기보 다, 현안 사업과 최신 관심사를 담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업무계획을 세 워달라”고 강조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학 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또 한 방과 후에 학교의 각종 시설을 활 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행 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이 번 회기 중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충남과학교의 기숙사 환경이 매우 열 약했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환경개선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 당)은 “충실한 늘봄학교 운영으로 학 생들의 사회성과 인간관계 형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학부모에

게는 일상생활에 안정성을 느낄 수 있 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교육 에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 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한 학생들의 참여 촉진, 학습 경험 향상 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 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준과 요구 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해 학업 성취도를 향상할 수 있도 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교 육지원청에서도 사립학교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관심을 두고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또한 사업추진에 어 렵움이 있다면 적극 청취하고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교육 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립에 반영해 달라”고 전하며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환경 조성으로 더 나은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마무리했다.

최정근/기자



# 안양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펼쳐

안양시의회는 제290회 임시회 기 간 중에 상임위원회별 현장 중심의 의 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30일 안양동 소재의 “장애인보호작업장 버 리 마을”을 방문하여 종사자를 격려했다.

위원회는 법인 간부직원, 시 장애인 복지과장 등 공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법인 관장 윤민서 신부의 인사말로 시 작해 시설장 이종교 신부로부터 일반 현황과 주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 을 청취하고 관계자들로부터 복지 현 장의 현안과 고충사항 등을 듣는 시간 을 가졌다.

윤경숙 위원장은 “근로를 하면서 활 기찬 작업장 종사자들에게 크게 감명 받았다”며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장 애인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날인 31일에는 도시건설 위원회(위원장 이재현)는 동안구청 인 근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신축현장을 방문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안전·교통·재난·재해 등 주요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시민들의 안 전 도모를 위해 지난 해 12월 준공을 마쳤다.

위원회는 홍보체험관, 관제센터, 견 학실, 자율주행 차고지 등을 둘러보 며, 시설을 심도있게 점검했다.

이재현 위원장은 “스마트도시통합 센터는 안양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 건물 내부 정비 등 작업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철저히 해 금년 4월 개소식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우용/기자



# 정채숙 의원, 출산과 양육친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임신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추진

## 「부산광역시 임신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이 2024년 1월 26일 제318회 부산 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에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임신 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0일 원안가결 되었다.

부산에는 2012년부터 「부산광역 시 임신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설치, 임신부에게 이용편의 와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이었다. 그러나, 교통약자 운 영실태조사 결과, 주차 차량 절반이 상(56.7%)이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여성전용주차구역이라 텅 비어 있 어도 여성이나 남성 모두 이용할 수 없 는 불편함 등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부산은 함께출산율이 국내 특. 광역시 중에서 두번째로 낮은 0.72 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부산 시 출산정책은 ‘출산 장려’에서 ‘출 산·양육 지원’으로 정책 전환을 꾀하 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기존 조례의 이용대상인 임신 부를 포함한 6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

는 가정(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에게 주차구역을 할애하는 가족배려주차 구역의 도입,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정채숙 의원은 “임산부전용주차 구역을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인 출 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여성을 포함 하여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다.”라고 조 례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가족배려주차구역의 구획 확장과 대 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덧붙였다.

김희태/기자

# 영덕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최

## - 의원발의조례 제·개정, 5분 자유발언 등 새해 첫 회기부터 왕성한 의정활동 펼쳐

영덕군의회는 지난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한 해를 설계하고 계 획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 획」을 보고받고, 부서별 주요사업의 정책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를 살피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의원들은 조 례안 6건을 발의하며 왕성한 자치입 법 활동을 펼쳤다. 그 내용으로, 김성 철 부의장은 민생 관련 조례로 영덕 군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 화를 위해 ▲영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 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

으며, 김성호 의원은 영덕군재향군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영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 의하였다.

또한 김은희 의원은 전국 기초자치 단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독립유공자 를 배출한 ‘호국보훈의 도시’라는 명 성에 걸맞게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 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 용 편의 제공을 위해 ▲영덕군 국가유 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김일 규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인 영덕군의 회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영덕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아울러 배재현 의원은 오래 공직생 활을 통해 습득한 보건 분야의 전문 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영덕군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 ▲영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 의하였으며, 신정희 의원은 영덕군의 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 해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하 였다.

이외에도 신정희 의원은 영덕의 대 표축제인 “제27회 영덕대게축제”를 앞둔 시점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 해 축제장의 고질적 관행인 바가지 요금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최근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을 상대로 한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상술이 잇따르면서 큰 논란이 지속되 고 있다”며 우리 군 각종 축제 시 철 저한 물가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판매가격 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인들을 대 상으로 서비스 함양 교육을 의무화하 여 이번 영덕대게축제가 바가지요금 없고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축제,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한 단계 더 성장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켜 니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합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 김동연, 2025년 착공 제3판교테크노밸리 '청사진' 발표

경기도, 제3판교테크노밸리, 2025년 착공해 2029년 준공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시공사)는 1월 31일 성남 판교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태년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윤영찬 국회의원, 청년, 창업 기획자, 기업인 및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을 이미 있는 제1.2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산업,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의 판교에 대한 꿈을 여러 분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주 전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가서 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 많은 기업인과 얘기를 나눴는데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세계 흐름과 변화의 조류 속에서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겁다. 경기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변화에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에 첫 삽을 뜬 '성남금도 공공주택지구' 내의 자족용지에 7만 3천㎡의 부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로 사업비 1조 7천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서, 2025년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연매출액은 168조 원으로 인천, 부산의 GRDP 104조 원을 능가할 정도로 글로벌 R&D 특구이지만 업무공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부족한 도시활력시설 등으로 인한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과 사회초년층의 직주근접이 어려운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직(職),주(住),락(樂),학(學) -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4가지 주제

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먼저 직(職) 분야는 우수 인재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제3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연면적 50만㎡ 가운데 글로벌 앵커기업 공간에 10만㎡(20%), 스타트업 및 연구소 공간 각각 7만㎡(14%)를 할애해 팍시스 시스템반도체, 게임, 인공지능(AI),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집적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추진 중인 '판교+20 프로젝트'도 구체화한다. 김 지사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 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판교+20 프로젝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제3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공간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을 위해 창업기획자(AC) 및 벤처투자자(VC) 등과 연계한 펀딩 운영, 테스트베드 등의 인프라 및 기술 지원, 법률 및 회계서비스, 네트워킹,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공할 수 있는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두 번째 주(住) 분야에서는 판교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직주가 분리되는 청년들을 위해 제3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연면적의 15%에 해당하는 7만 5천㎡공간에 공공기숙사 1천 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20~30㎡ 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고, 식사서비스, 공유라운지,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사양의 기숙사 공공이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료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숙사 공급을 위한 용적률을 상향(400%→500%)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지난해 성남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세 번째 락(樂)은 직장인과 주거에 이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내용

이다. 도는 기존 1·2판교에서 여전히 속세로 남아 있는 '퇴근 시간 이후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소통·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식공간, 워라밸파크, 메타밸광장, 각종 근생시설, 스포츠콤플렉스 등 다양한 도시활력기능을 계획했다.

네 번째 학(學) 분야는 첨단학과 대학교 유치이다. 제3판교에 대학이 들어서면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근로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기업 수요형 R&D 활성화에 따라 대학과 기업연구소 간 인적교류와 선도 기술 개발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기업은 경쟁력이 강해지고, 청년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도는 대학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대학이 들어서게 될 공간은 연면적 약 5만㎡(10%)로서 이르면 2월 중에 공모절차에 들어가 빠르면 상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모든 건축물에는 김동연 지사의 'RE100' 선언의 뜻에 따라 '제로에너지빌딩 기법' 도입 등으로 탄소배출이 최소화될 것이며, 기숙사 공급으로 통근량을 감소시켜 탄소배출을 크게 저감시킬 계획이고, 더 나아가 청년들의 소중한 출퇴근 시간을 아껴 미래를 위한 꿈을 키우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에는 청년, 창업기획자, 기업가, 대학생,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 100여 명이 참가해서 발표계획을 경청하고 김동연 지사와 간담회를 이어갔다.

사업계획 발표 이후 김동연 지사는 청년, 창업기획자, 기업가, 대학생,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과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경기도 혁신역량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 있는 20개의 '경기-테크노밸리'에 대해서도 제3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개발해나간다고 밝혔다. '경기-테크노밸리'는 산업시설 용지내에 기숙사같은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기업 등을 함께 조성해 '직(職, Work)-주(住, Live)-락(樂, Play)' 그리고 지구별 특화 요소(α)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족기능 강화 도시를 말한다. '경기-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인 20곳은 남양주 왕숙 1·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등 경기도에 조성 중인 16개 3기 신도시와 제3판교테크노밸리,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내 산업시설 용지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경기도에 고양성사혁신지구 관련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적극 검토 요청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31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도시계획시설(광로3-7호선 외 1개 노선)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청 지역정책과(개발제한구역관리팀)에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 사업은 국토교통부 정책사업인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통합심의 시 교통영향평가 반영사항으로, 고양대로 및 충장로의 교통량 처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를 위한 도로 1개 차선(가감속차선)을 확장하기 위한 도로계획시설(도로)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성사혁신지구 준공 예정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그린벨트(GB) 미해당

구간 확폭을 우선했으나, 교차로 특성상 GB 내 일부 가감속차선을 추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보완요청 사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교통개선을 처리할 경우, 도로 전체 선형 변경이 수반되고 과도한 토지수용(보상) 및 탄소배출 증가 등이 문제로 작용 될 수 있기에 고양시는 기존도로 선형 유지를 통한 업무추진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성사혁신지구는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1호 사업으로 선정·추진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가 크다"며 "모든 일에 절차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으나, 토지수용·철거·탄소배출

등 필요 이상의 행정절차를 수반한다면 이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해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도의 보완요청 사항에 따라 도로 전체 선형 이동 시 도로 확장구간이 기존 218m에서 1,029m까지 대폭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렇기에 소관부서인 경기도 지역정책과에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변재석 의원은 지난 1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도시정비과(도시재생관리팀)과의 면담을 통해 성사혁신지구 및 관련 사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경기도와 고양시의 소통 창구 역할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김범상/기자

### 장흥 9경 9미 9품 [장흥 대표 볼거리·먹거리·살거리]

**9품** 장흥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풍경  
편백숲 우드랜드,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보림사, 천관산, 소동섬, 제암산, 선학동마을, 탐진강, 정남진 전망대

### 9미

꼭 먹어봐야 할 장흥 별미  
장흥삼합(한우+표고버섯+키조개), 매생이탕, 된장물회, 하모사부사부, 키조개요리, 감오징어 회·먹찜, 향찰백숙, 굴구이, 바지락회무침

### 9품

자연이 선사한 특별한 선물  
표고버섯, 햇개, 무산김, 친황경쌀(아르미), 청태전, 황칠, 매생이, 한우&육포, 낙지

# 경기도의회 임종현 의장 "통합의 길" 향해 경기도와 손잡고 분발할 것

2024년 경기도민회 신년 인사회 참석

임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1일 '2024년 경기도민회 신년 인사회'에서 경기도의 주요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오후 서울 더화이트베일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민회 회장단인 유용태 회장, 송달용 명예회장, 이재창 직전회장을 비롯해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태희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김문수 전 도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종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경기도를 둘러싼 많은 일이 있었고, 경기도 미래를 좌우할 다양한 의제, 현안에 대한 논쟁은 새해를 맞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며 "'흠여 지지 않는 통합의 정신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전국 최대, 최고의 광역단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역의 현명한 원로인 경기도민회 선배

들께서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 의장은 "경기도는 최근 몇 년 새 경기도만의 정책과 역동성을 통해 위상을 크게 높여왔다"라며 "경기도의회 또한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 구조 속에서 지방의회 협치의 새 역사를 써나가며 주목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1,400만 경기도민께서 경기도에 대한 자부심,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손잡고 더욱 분발하겠다"라며 "경기도민회가 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민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 간 협조관계를 구축을 기반으로 지역발전 기여하고자 1986년 설립된 기관이다.

지난해 말 기준 회원 수는 총 2천 789명으로, 주로 '도내 장학생·예체능특기생 장학금 지급', '경기푸른미래관 위탁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김범상/기자



#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 여주시, 새해 정책 브리핑으로 활기찬 출발

### 민선 8기의 주요 현안 과제로 새해 첫 정책 브리핑 열어

지난 31일, 여주시는 신문·방송·인터넷매체 등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첫 정책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정책 브리핑에는 여주시 출신 기자를 비롯해 110여 명의 언론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인터넷과 방송, 지면을 통해 여주시정에 보여준 기자 여러분의 발 빠른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에 감사한다”며 “민선 8기 여주시가 제시한 정책과 현안 과제들이 절반이 넘는 이행률을 보이며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언론의 비판과 조언에 귀 기울이겠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24년 전반적인 시정계획 보고로 시작한 이날 정책 브리핑은 여주시 반부패·청렴 시책, 신청사 건립 사업, 출렁다리 공정 및 연계사업,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처리 시설 사업,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 사업, 각 지역 도시개발사업, 현암단지 시민공원 조성 사업,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도입 사업 등

주요 현안 과제를 망라해 추진 상황이 보고됐으며, 뒤이어 이충우 시장과 열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신청사 건립과 교육 문제, 그리고 역세권 개발과 기업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질의가 나왔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립과 관련한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만의 지역 특색을 극대화한 통합마케팅 조직인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를 설립해 여주 대외대표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뿐만 아니라 여주시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농특산물의 홍보와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여주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오는 6월부터 여주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도입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 8억 6200만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여주시는 경기도 우대용 G-PASS 교통카드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이

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충우 시장은 그동안 완공이 미뤄졌던, 남한강을 가로질러 신록사지구와 금은모래지구를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며 “민자를 유치해 출렁다리와 신록사, 금은모래 유원지를 연계해 이 일대를 여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만드는 명사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브리핑은 이충우 시장이 올해 첫 행사인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새해 시민과의 대화’에 이은 첫 언론과의 대화로 민선 8기의 주요 정책에 관한 많은 관심과 질의가 쏟아졌다. 연초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등 기분 좋게 출발한 이충우 여주시장은 “올해도 신뢰받고 공감하는 반부패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 1번지’, ‘청렴 핫플레이스’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범상/기자



## 이천시,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합동안전점검 실시

이천시는 1월 30일 설명절 대비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부시장(엄진섭)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이천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민간 전문가, 보건소(위생), 전통시장상인회, 일자리정책과)이 광고전통시장, 장호원 전통시장 (전기·소방·가스)시설, 위생 등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발생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내 대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건축물 구조점검 여부, 소방경보·피난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에 참여한 이천소방서는 내 점포로 인하여 전통시장에 화재가 번지는 일이 없도록 상인들에게 철저 관리를 부탁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는 시장 내 건축

물이 소규모시설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나 전기배선 및 정격차단기 교체를 통하여 소방설비를 잘 갖추고 보수 시 내부는 불연성 마감재로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부시장은 상인 모두가 합심하여 전기제품 사용 습관을 개선하고 야간순찰을 지속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자율적인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를 당부하고 관련기관에서는 상인회 회의 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민관이 합동으로 화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 화성시,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 개관식 개최



화성시가 31일 오산동 소재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

롯해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사회단체장, 지역 주민 등 각계각층 내빈들이 참석한 가

운데,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내빈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은 지난 해 12월 8일 임시 개관하여 임시 운영기간동안 무료로 운영됐고, 2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되어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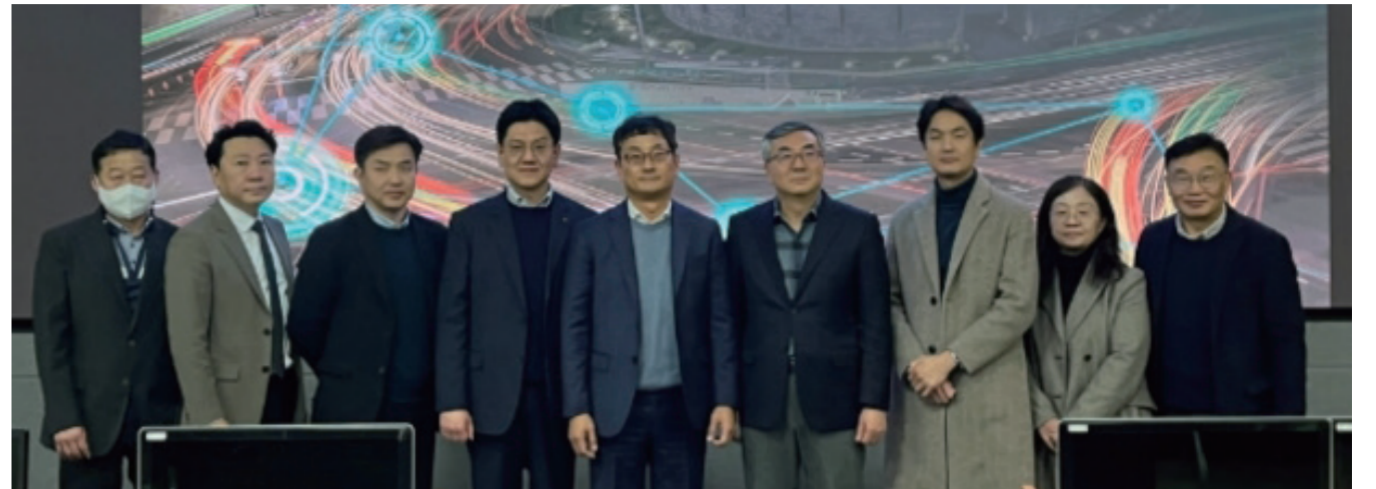
시설 개방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주말·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현장의 발권기를 통해 시간대별로 이용 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은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과 나아가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여가 생활 증진을 위해 100만 도시 화성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수원시, ‘2022~2023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완료

### AI기반 신호제어 시스템, 교통정보 시스템, 센터 시스템 등 구축



수원시가 ‘2022~2023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1월 31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준공보고회를 열었다.

국도교통부 공모사업인 ‘2022~2023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AI(인공지능) 기반 교통신호시스템을 구축해 교통패턴 변화에 맞는 신호체계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이다.

KT컨소시엄이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비는 국비 42억 원, 시비 28억 원 등 70억 원이 투입됐다.

AI기반 스마트교차로(51개소), 감응신호시스템(10개소), 표준신호제어기(60식), 긴급차량 우선신호 전광판 등 ‘AI기반 신호제어시스템’과 공간교통정보수집설비(20식), 교통 CCTV(3개소) 등 교통정보시스템을 설치했다.

또 센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센터 하드웨어를 도입하고,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수원시가 2020년 2월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하는 ‘센터 방식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GPS(위성항법장치)로 추적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인프라(기반 시설)를 활용해 구축한 ‘센터 방식’은 도시안전통합센터와 연결된 모든 교차로의 신호를 제어할 수 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시간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보다 56.3% 단축됐고, 시스템 운영 후 긴급차량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는 교통·전자·통신·제어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관

리·제공하고, 안정성·편의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버스정보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지능형교통체계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장환 수원시 안전교통국장, KT컨소시엄 관계자, 사업을 감리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기반으로 ‘2025년 수원 ITS 아태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도교통부는 지난해 2월 ‘2025년 ITS 아태총회 유치 후보 도시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수원시를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국도교통부는 수원시, 경기도,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등과 유치준비단을 구성했고, 지난해 4월 중국 쓰촨우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종 제안발표에서 ‘2025년 ITS 아태총회’를 수원시에 유치했다.

김범상/기자

## 용인특례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장시간 주차 요금 변경

### 공공청사 주차요금 1일 최대 8천원→1만5천원으로...5시간 이내 주차는 종전대로

#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을 신청하려고 용인시청을 찾은 처인구 김모씨는 주차장 진입구를 가로막고 늘어난 자동차들 때문에 주차는커녕 이동조차 어려워 30분 이상 애를 먹어야 했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자동차들이 통행로까지 점거해 보행자들은 들고 돌며 걸어야 할 정도였다.

# 업무차 용인시청을 자주 찾는 기흥구 박모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빙빙 돌다 회의에 매번 지각한다고 하소연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늘 같은 자리에 주차해 둔 차량이 원망스럽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용인특례시는 31일 장시간 주차장을 점유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1일 최대 주차요금을 종전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30분 초과 시 10분당 300원(시간당 1800원)이다.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주차하더라도 5시간 주차비인 8000원만 부과됐지만 3월부터 5시간을 초과해 주차한 차량에 기존 요금이 적용돼 1일 최대 1만5000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5시간 이내 민원인 주차에 대해선 이번 조정과 관계없이 종전의 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조정된 요금을 적용받는 대상 주차장은 용인특례시청과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등 3개 구청사, 중앙동·보정동·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등이다.

시가 이처럼 5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에 적용하는 1일 요금을 변경하는 것은 민영주차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공공주차장을 환승 주차장이나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 일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특례시의회도 장시간 주차 차량으로 공공주차장 혼잡도가 극심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8일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9조 ②항을 개정했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3개 구청 부설주차장의 혼잡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중앙시장과 가까운 처인구청 부설주차장은 113면에 불과해 용량을 51%나 초과할 정도로 차량이 넘치고 있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수지구청 주차장도 혼잡도가 극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을 타거나 시장을 보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청사 주차장을 장시간 이용하는 차량으로 민원업무 차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해 부득이 5시간 초과 주차요금을 기존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다수의 시민이 편안하게 공공청사를 찾을 수 있도록 장시간 주차를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광주시 광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자에게 설날맞이 감사서한문 발송

광주시 광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정기 후원금 및 물품을 기탁해 주신 개인 및 기업 후원자 194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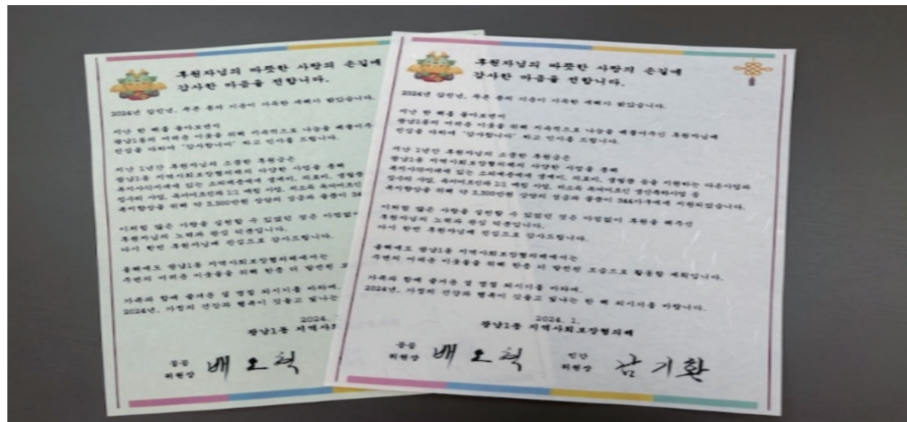
서한문에는 2023년 광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한 사업 성과와 새해 명절 인사 및 후원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후원 성금은 맞춤형 복지사업(다운 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홀몸 어르신과 1:1매칭 사업 등 8개의 광남1동 지

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운영의 원동력이 됐으며 후원 성품은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배오혁·남기환 공동위원장은 “지난 한 해는 우리 주변 이웃들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손길들로 따뜻한 한 해 였다”며 “후원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24년에도 관내 취약계층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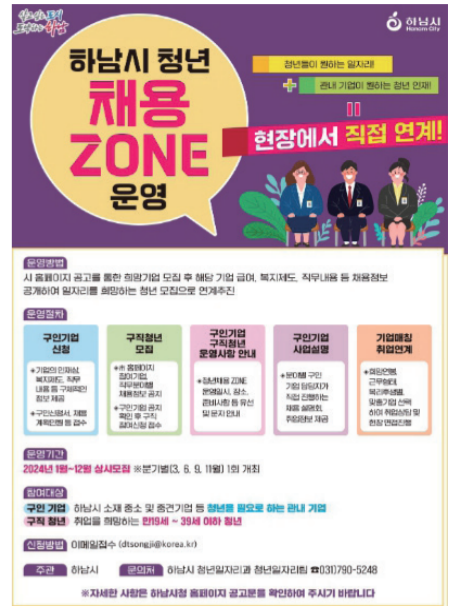
### 하남시, '2024년 청년 채용 존(ZONE)' 새롭게 출발

청년-기업 간 연계·채용설명회-이력서 제출-현장면접  
-실시간 채용 '원스톱 취업' 지원

하남시가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 취업을 제고 위한 '2024년 하남시 청년 채용 존(ZONE)'을 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민간 채용 플랫폼 등을 활용해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참 관청은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 더욱 우수한 기업모집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등 중앙기관을 활용해 참여기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해냄센터(하남시 미사강변대로 84)에서 운영하는 '하남시 청년 채용 존(ZONE)'은 분기별(3, 6, 9, 11월)로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들에게 특화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위해 구인 희망 기업에서 직접 구직 청년들에게 △기업의 근무 형태 △직무내용 △연봉 △복지제도 등 채용 분야에 대한 설명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구직 청년은 채용설명회를 듣고 기업정보와 희망 조건을 선택해 현장에서 이력서 제출부터 면접, 실시간 채용까지 원스톱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홈페이지에 참여기업들의 상세 채용 정보를 공개해 구직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취업 상담·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 취업을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구직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시 홈페이지의 '구인 기

업 공지' 확인 후, 메일을 통해 신청하거나 청년해냄센터로 직접 방문해 지원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올해는 더 경쟁력 있고 탄탄한 우수기업 모집 확대를 통해 다양한 기업의 참여로, 넓은 선택지 속에서 보다 만족스러운 취업 성공을 이루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취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좋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청년 채용 존(ZONE)'은 작년 9월과 11월 첫 운영 결과 구직 청년 총 40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하고 그중 45%인 18명이 현장 채용 또는 1차 면접 합격하는 등 취업 연계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범상/기자

### 성남지역 식품 관련 업체들, 19년째 먹거리 나눔 행사 '훈훈'

(사)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 1억4000만원 상당 28곳 사회복지시설에 보내



성남지역 식품 관련 업체들의 모임인 (사)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가 올해로 19년째 '사랑의 식품 나눔기 행사'를 열어 어려운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눴다.

(사)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31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광장에서 1억4000만원 상당 먹거리를 28곳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행사를 했다.

협회 회원사인 아로마라인(주), (주)고메베이글, (주)조이푸드, CJ씨푸드(주), (주)동원에프앤비 등 22개 식품회사와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의 10개 유통업체 등 모두 32개 사가 식품 기부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가 기부한 먹거리는 빵, 과자, 김, 가공육, 쌀, 라면, 음료 등 자사

생산·취급 품목들이다.

이날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 임직원 등 70명이 업체별 기부 식품을 배분해 노인·아동·장애인·여성·노숙인·다문화시설 등에 한 곳당 300만~800만원 상당씩 보냈다.

이동현 협회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라면서 “모두가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 나눔 행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는 2006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회원사들이 기부한 먹거리 나눔 행사를 이어와 이번까지 17억9000만원 상당을 성남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김범상/기자

### 고양특례시,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고양특례시는 30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민에게 안정적이고 만족도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추진 방안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교통전문가 및 버스업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보고회는 먼저 2025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수행계획 설명으로 시작했다. 이어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방향설정, 재원 최소화 방안, 상위기관의 준공영제 보완점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올해부터 시내버스 일부노선 준공영제를 시작하고, 마을버제도 2025년부터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



이다.

이를 위해 고양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실행 가능한 버스 준공영제 실행 방안 수립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 협의체를 구성하여 준

공영제 추진을 더욱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 버스운수종사자 모집을 위해 오는 2월부터 고양시 관내 전역 74곳에 운수종사자 모집 현수

막을 게점할 것”이라며, “운수종사자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대중교통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 안양시 만안·동안구청, 2024시즌 FC안양 연간회원권 구매 행렬

FC안양 연간회원권...텀블러, 구단 상품(MD) 10% 할인권 등 혜택

FC안양의 최대호 구단주가 지난 23일 FC안양 연간회원권을 첫 구매하며 FC안양의 활약을 응원한 데 이어, 안양시 만안구와 동안구의 양 구청장과 직원들도 연간회원권을 구매하며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

최광현 만안구청장은 “FC안양의 K리그 1부 도약을 직원들과 힘차게 응원한다”며 “시민구단의 주인인 안양시민들께서도 FC안양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문규 동안구청장도 “FC안양이 더 뜨겁게 뛰고 안양시민에게 기쁨을 주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동안구 공직자들과 함께 FC안양의 K리그 1부 승격을 더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FC안양은 오는 3월 1일 오후 2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2023시즌 9위)와 홈 개막전을 펼친다.

텀블러, 구단 상품(MD) 10% 할인권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FC안양 연간회원권은 카드형과 티켓북으로 구분해 판매되며, FC안양 사무국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인터넷 '티켓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우용/기자



# 전남도, 여수서 야간관광 불 밝힌다

## 문체부 '성장지원형' 공모에 선정...밤 모습 소리로 청각화 눈길



전라남도는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선정하는 2024 야간관광 특화도시 성장지원형에 도내 최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2027년까지 최대 4년간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24억 원(국비 50%·지방비 50%)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지역 체류형 관광 기반 마련을 통한 야간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명소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된다. 여수시가 선정된 성장지원형은 잠재력 있는 지역 기반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등 지역 특화 야간관광 명소로 성장가능한 도시에 지원하는 유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특색있는 야간

경관을 가진 7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여수시가 전국 3개소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여수시는 '밤의 소리'가 특별한 야간관광 도시, '여수'를 비전으로 정해 기존 시각적 자극에 중점을 둔 야간관광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채로운 밤의 모습을 '소리'로 청각화한 새로운 야간관광의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도, 국동항, 남산공원 등 여수의 밤을 대표할 새로운 야간명소를 개발하고, 이순신 장군 등 역사적 인물의 활약을 보여주는 '여수의 밤, 천동소리' 공연과 항일암 대나무 소리와 일출, 수협 경매시장 등 여수의 다양한 소리를 찾아가는 '밤소리 투어'도 운영한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 야간관광, 체류형관광 등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지역만의 특색 있는 관광정책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도내 야간관광 자원을 발굴해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K-디즈니 순천,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 탄력

## 노관규 시장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만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사업 등 현안사업 건의

순천시는 31일 세종 박연문화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공동 연수회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노관규 시장은 유인촌 장관을 만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2024년 사업비 390억 원) 후속 사업으로 문화콘텐츠 인재양성과 제작지원 및 IP 개발 사업을 건의했다.

또한,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과 관련해 정부의 만화계·간 영화제(가칭 국제 만화·웹툰 시상식)와 연계해 오는 10월 순천에서 열리는 만화·웹툰·애니메이션 산업전에 대해 설명하고 K-만화·웹툰의 대표 축제로 웹툰 중주국 위상을 만들어 가는데 협력할 방침이

다.

노시장은 기획발전특구지정을 통해 수도권 앵커기업 지방이전 등 기업의 산업 확장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최종 문화도시 지정시 최대 200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로 피어나는 정원문화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삼고 유니버설 문화도시를 조성, 애니메이션 산업전을 개최하는 등 K-디즈니 순천을 만드는 추진 동력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선도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승준/기자



# 반값 강진여행' 선포식서 고향사랑기부제 열띤 홍보

## 강진군,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서 적극 안내

강진군이 지난 26일, '2024년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선포식을 개최한 가운데 관계자 및 출향인을 대상으로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반값 강진 관광은 2인 이상의 가족이 강진으로 여행을 오면 소비 금액의 50%, 최대 20만원까지 모바일 강진 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강진만의 역점 시책이다.

이번 홍보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과 인근에서 이뤄졌으며, 주요 참석인사와 관광객에게 제52회 강진청자 축제를 소개하고 강진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제도에 대해 안내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강진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기부자)이 강진군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강진군의 답례품을 받고 이 기부금은 강진군을 위해서 쓰인다.

신기은 총무과장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기부할 수 있다"며 "강진년 새해 관광도시 강진에서 강진만의 맛과 멋을 듬뿍 느끼고, 강진 고향사랑기부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답례품은 한우, 쌀, 파프리카, 전복 등 강진 대표 농수축산물과 푸스 체험권, 강진사랑상품권, 가우도 즐기기 이용권 등 관광상품목들이 마련돼 있다.

강진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희망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 후 고향사랑이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에서 대면으로 기부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강진군청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추윤호/기자

# 남원시, 설명절 맞이 빈틈없이 살피는 생생현장투어 추진

## 공공이용시설, 시민불편사항 등 특별점검 실시

남원시 시민소통실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과 귀성객의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읍면동 마을 및 주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1월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소통실 120인원봉사대에서 운영 중인 '빈틈없이 살피는 생생현장투어' 특별점검반을 구성, 자전거·차량·도보 등을 활용하여 주요 공공시설물·관광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여객터미널 등의 불법 게시물, 쓰레기 적치물, 통행불편사항, 도로 위험요인 등 시민불편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120인원봉사대에서 즉시 처리

하고, 장비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등은 관계부서에 신속하게 알려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에도 120인원봉사대 생생현장투어를 통해 도로,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899건의 민원처리를 실시한 바 있다.

김민주 시민소통실장은 "우리는 설 명절을 맞아 주요 공공시설물 및 도로·교통·환경 등을 집중 점검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 이를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현장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나주시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활성화 연구용역' 완료

## 현황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여성정책 방향 도출

전라남도 나주시가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착수한 '나주시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최근 나왔다.

해당 용역은 지역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현황 파악 및 요구 조사를 통한 맞춤형 정책 수립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과업 내용은 나주시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현황 조사, 여성 커뮤니티 현황, 경제·사회참여 욕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진단,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활성화 및 연계 방안 도출 등이다.

다양한 의견·자료 수집을 위해 빗가람동, 남평읍, 원도심, 영산포 등 권역을 나눠 30~59세 여성 39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또 여성정책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



뷰 등을 통해 권역별 특성이 반영된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연령별로 30대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서'(21.9%), 40대는 '가사 및 자녀 양육, 자녀교육'(20%),

50대는 '일하기 위한 기술과 경험 부족, 임금·근로조건이 맞지 않아서'(26.9%)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취창업 준비를 위한 경제적 지원 요구에 부합하는 인프라 개발 및 지원, 학력·연령대별 맞춤형 취창업 지원, 성별·나이 등에 따른 차별 금지

김영만/기자

# 진도소방서, 섬 지역 안전체계 구축 위한 '서진도농협' 업무협약

진도소방서는 지난 1월 30일 서진도농협과 섬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등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안전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정은 진도군 관내 섬 지역에서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서진도농협에서 운영하는 선박을 무상으로 지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선박 이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현장대응 능력 향상은 물론

지역적 특수성으로 소외됐던 섬 지역의 소방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소방서 박천호 서장은 "이번 소방안전협정을 통해 상호 보완적 구조체계 구축은 물론 각종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력 투입 등으로 섬지역 주민들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간담회 개최로 축산농가와 소통

## '함평 한우 이야기' 두 번째 만남 가져



전남 함평군은 지난 25일 우량 암소 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함평축협 대회의실에서 '2024년 우량암소 사육농가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규 시책인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사업'을 비롯하여 2024년에 시행하는 한우육성 분야 사업들에 대해 전년도와 달라진 점 등을 홍보하고 한우 개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우량암소 사육 농가를 비롯하여 함평축협, 전국한우협회 함평군지부에서 참석하여 함평군 한우 사육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한우 혈통 개량에 대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는 등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다.

작년 12월 말 기준 함평군에서 총축

개량협회에 등록된 우량 암소 개체수는 93두이며 이번 우량 암소 형질 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우량 암소 사육 농가와 개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수정된 이식사업으로 생산된 혈통 송아지에 대해 지역 축산 농가만 경매에 참여하게 하는 등 관내 유통을 권장하고, 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관내 분양하는 농가에 대해 사업비를 보조할 방침"이라며,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축산 농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평군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 전북도,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하세요!

##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계작물 선지급을 위하여, 동계작물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리접수를 추진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 도모, 논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한 정책으로, 지급대상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동계에 식량작물이나 조স্য류 재배 시 50만원/ha, 하계에 식용 옥수수 재배 시 100만원/ha, 두류, 가루쌀 재배 시 200만원/ha, 조স্য류 재배 시 430만원/ha를 지급받는다.

단일재배와 달리, 지급대상 전략작

물 중 특정 품목을 연계하여 이모작하는 경우 ha당 100만원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인센티브 대상작물로는 동계에 밀·조স্য류, 하계에 두류·가루쌀 총 4가지가 있다.

작년에 첫 시행된 전략작물직불사업은 올해도 확대 운영된다.

기존 하계 논공 품목에 추가로 완두, 녹두, 잠두, 팥을 포함해 두류로 확대하고, 하계 두류 지급단가는 100→200만원/ha으로 인상 지급한다.

하계 식용 옥수수(100만원/ha)도 지급대상 품목으로 신규 추가됐다.

하계조স্য류 대상 농지는 쌀 감축에 참여했던 경영체까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3년도 벼 재배농지 및 하계조স্য류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농지' 뿐만 아니라, '18~'23년까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지자체 쌀 생산 자율감축 협약을 통해 조স্য류를 재배한 농

지까지 포함한다.

또한, 기존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중복지급이 불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작기를 달리할 경우(동계/하계)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농지도 지급대상 농지로 포함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동계작물 4~5월, 하계작물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에 등록자 확정 후 12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략작물직불사업은 쌀 수급안정 도모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이며, 작년 첫 시행 후 올해도 확대되는 사업인 만큼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이 대폭 확대됩니다.**

**신청 자격** : 농업경영체에 종사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사농직영농경영체

**대상 작물 지급 단가**

- 동계작물(11~4월): 밀, 보리 등 200만원, 조식 400만원
- 동계작물(11~4월): 가루쌀 200만원, 옥수수 100만원, 조식 400만원
- 하계작물(5~10월): 가루쌀 200만원, 옥수수 100만원, 조식 400만원
- 이모작: 밀·조식 + 가루쌀 두류 임의작 100만원(조식 제외)

**소득 면제** : 1,868억 원(2023년 1,121억 원 대비 747억 원 증가)

**신청 기간 및 접수 장소**

- 신청기간: (동계작물) 2.1.~5.31, (하계작물) 2.1.~5.31
- 접수장소: 농작업지원센터 등 읍면사무소

**2024년도 알리는 바**

- 농업인·농업법인: 신청·접수
- 대상 농지: 전략작물 재배 농지
- 신청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농업인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농업인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 신청서 제출: 신청서 작성 후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농업인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농림축산식품부

## 장흥군, 개별공시지가 24만 3,708필지 산정

장흥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16일까지 지가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흥군은 사유지 164,440필지와 국공유지 79,268필지를 포함한 243,708필지에 대한 가격 산정을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로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중요 특성을 국토부장관이 1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의 검증을 거쳐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장흥군수는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0.08% 상승한 것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한 대부분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 해남군, 설 장바구니 물가부담 줄인다

해남군은 설 명절 서민가계 부담을 줄이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군은 오는 8일까지 설 물가안정 관리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직접적인 설 물가 부담 완화를 목표로 분야별 점검과 함께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게 된다.

우선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공공요금 3종인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는 올해도 동결한다.

설명절이 포함된 2월 한 달간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행사를 실시하며, 1인당 할인 한도액도 100만원으로 늘려 판매한다. 소비자들은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하고, 다시 지역내에서 소비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서는 설 연휴 전까지 농수특산물 및 가공

식품 14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임업업체와 군 지원을 더해 최대 46%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해남군이 자랑하는 농수특산물과 가공품으로 물가 부담없는 설명절 선물을 마련할 수 있다.

설을 앞두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도 집중 지도, 단속한다. 물가모니터링원, 유관기관과 물가안정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가격담합, 계량 위반 등을 점검한다.

또한 설 명절 주요 성수품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을 수시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경기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직자 복지포인트를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가운데, 공직자,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최갑문/기자

## 완도군, 설 연휴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합동 점검 나서

###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안전점검반 편성

완도군은 군민과 귀성객들이 설 명절을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대비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합동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점검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과 문화·판매시설, 전통시장, 요양시설, 터미널 등 화재 취약시설 43개소이다.

지난 29일에는 김현철 부군수와 박춘천 완도소방서장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입주민세대를 방문하여 안전 점검 및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

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보완 조치를 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설 명절 전까지 보수·보강 등 긴급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현철 부군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등으로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



## 목포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총력!

### 국내·외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 유치한 여행사에 파격 인센티브 지원

목포시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국내 및 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여행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목포시에 국내 관광객을 10명 이상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1월 31일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관내 식당 1식 ▲관내 숙박 1일 ▲유료관광지 1개소를 방문할 경우 1인당 최대 1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관광객 10명 이상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서는 ▲관내식당 1식 ▲관내 숙박 1일 ▲유료관광지 2개소 입장 ▲사후면세점 방문할 경우 1인당 최대 6만원을 지원한다.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는 1인당 1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로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경우 종합여행업

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시는 코로나 이후 국제 관광 회복 추세에 따라 다양한 관광 마케팅을 전개했다. 특히, 지난 해 11월에는 중국 최대 국영여행그룹인 중청려(中青旅)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했다.

올해는 현지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관광공사 및 전남관광재단과 연계해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여행사 팸투어 ▲전남관광설명회 참가



## 신안군 '부엉이 곳간', 국토 최서남단 흑산도에서 새공예작품 전시 개최

### 신안새공예박물관, 부와 행운의 상징 부엉이 공예품 등 1,100여 점 공개

신안군은 국제적인 철새 중간 기착지인 흑산도에 조성된 새공예박물관에서 오는 3월 30일까지 '부엉이 곳간'을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토의 최서남단에 있는 신안 흑산도는 철새들의 주요 이동 길목으로 봄, 가을철 다양한 철새들이 관찰되며, 이동 중 지친 체력 보충을 위해 쉬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국내에 기록된 600여 종 중 국내 최대인 420여 종이 흑산도 권역에서 관찰될 정도로 철새들의 주요 거점이기도 하다.

신안군은 국가 간 이동하는 철새와 서식지를 보전하고 새(조류)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를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 새공예박물관을 개관했다.

이번 기획전은 '부엉이 곳간'으로 사람에게 친숙한 부엉이를 주제로 개최한다.

부엉이는 예로부터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데, 먹이를 닷치는 대로 물어와 쌓아두는 습성으로 화수분처럼 끊임없이 재물과 행운이 샘솟는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부엉이와 관련된 장식품을 지인에게 선물한다.

김영진/기자

이런 부엉이 습성으로 '부엉이살림', '부엉이 곳간'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기획전은 미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등 20개국에서 수집된 공예품 70점과 국내 도자 공예품 13점 등 총 83점의 부엉이 공예품을 3월 30일까지 전시한다.

새공예박물관에 전시된 공예품은 10여 년 전부터 신안군청 직원들이 국내·외에서 직접 수집한 작품으로 현재 27개국에서 수집한 공예품 1,1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그중 작품성이 좋고, 이야기가 있는 공예품 500여 점을 선별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박물관 외부에 조성된 새조각공원에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쇼나 조각 100여 점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0년간 많은 직원의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새공예박물관이 현재는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가 됐다."라며, "기획전을 통해 새공예박물관을 알리고, 방문하는 모든 분이 부엉이 기운을 받아 행복과 행운을 함께 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보성군은 산림사육원 직원들이 산림사육원 내부를 소개하고 있다.

보성군은 산림사육원 직원들이 산림사육원 내부를 소개하고 있다.

보성군은 산림사육원 직원들이 산림사육원 내부를 소개하고 있다.

## 보성군, 산림600 산불이 없는 보성군을 만들자!

### 2월 1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1명을 선발해 전진 배치해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및 기동 순찰을 강화하고 농업·임업 부산물의 불법소각 등 소각 행위 관련 예방활동과 현장 대응으로 더 안전한 보성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산림산업과에서는 소형파쇄기

를 무상 임대하고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군민들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영/기자

## 구례소방서 개칭...전남 모든 시군 소방안전망 갖춰

### 2만4천여 군민 안전지킴이 힘찬 출발, 현장 신속대응 기대

전라남도 구례소방서가 30일 개칭식을 갖고 구례군민의 안전지킴이로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로써 전남도 22개 모든 시군에 소방서 설치가 완료돼 촘촘한 소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이날 개칭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용 국회의원, 이동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례소방서는 전남지역 22번째 소방

서로 지난해 3월 착공을 시작으로 총 사업비 약 89억 원을 들여 5천791㎡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예방안전과로 구성됐으며, 1개 119안전센터(구례)와 2개 구조대(구례·산악)를 운영 중이다. 총 107명의 소방공무원과 소방장비 23대가 배치돼 2만 4천여 구례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 22개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문을 열어 대단히 든든하다"며 "구례소방서가 군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믿음직한 안전지킴이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진 구례소방서장은 "오랜 염원이던 소방서가 개칭됐다"며 "신속한 재난 예방활동과 현장 대응으로 더 안전한 구례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경북도, 세심한 민생경제대책으로 따뜻한 설 명절을

## 2024년 설맞이 종합대책 점검 및 주요현안, 정책제안 논의

경북북도는 31일 도 관계부서와 11개 경제기관 임직원들이 모여 설맞이 경제분야 종합대책 점검 및 지역경제전망,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는 제1차 '경북 행복경제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경북 행복 경제 정책회의'는 2020년부터 경북도와 지역 경제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경제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사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운영한다.



이번 회의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경북도의 경제 분야 주요 대책의 추진 사항 등을 점검·보완하고, 경제전망과 기관별 주요 현안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설맞이 주요 대책 중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26일까지 접수된 558건 중 464건, 1,343억 원을 추천했고, 대출이자의 2%를 1년 동안 지원한다.

한국의행 대구경북본부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4~10등급 저·중신용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10억 원 이내로 한시 특별지원(8,916억 원 규모)을 실시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소매점포, 대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일제 점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과 함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로 요금 인상 자제를 유도한다.

제수용 과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저장 중소과와 농축협 계통의 소고기, 돼지고기의 출하량 확대도 병행한다.

이 외에도 일반 공산품, 농축산물, 수산물 등 다양한 소비 활성화 행사를 명절 전까지 실시한다.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공배달업 먹거리 앱으로 구매 시 3천 원의 할인을 받는다.

설 연휴 동안 하루 33만 대, 50만 명의 교통량이 예측되어 시외버스 19개 노선, 45회를 증편하고, 시내버스는 혼잡시간인 9시~13시에 집중배치하고 택시 부재는 해제한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대구본부세관, KOTRA 대구경북지원단이 지난해 경북의 수출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을 교훈 삼아 올해 모든 기관이 합심하여

수출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기관에서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제조로봇을 활용한 표준 공정모델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로봇 플러스사업'을 제안했다.

제안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글로벌로봇클러스터 등과 협업하여 지역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과 로봇 활용 기술 촉진을 도모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부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취업지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등을 기획·추진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융자\*와 대환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의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어 민생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세심하고 꼼꼼한 대책 수립으로 지원정책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더욱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대구소방,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 설 명절맞이 주택용 소방시설 적극 홍보 나서

### 관내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소방·협력단체 360여 명 소규모 캠페인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2일(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은 초기에 화재를 감지해 신속한 대피 및 화재진화를 돕는 시설로 설치가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적은 비용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는 필수적인 소방시설이다.

이번 홍보는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소중한 분들에게 안전을 선물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대구소방은 서문시장 등 관내 주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360여 명이 소규모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들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과 설치 방법을 알리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스크린 및 지역 전광판을 활용해 영

상과 문자를 송출하고, 언론·SNS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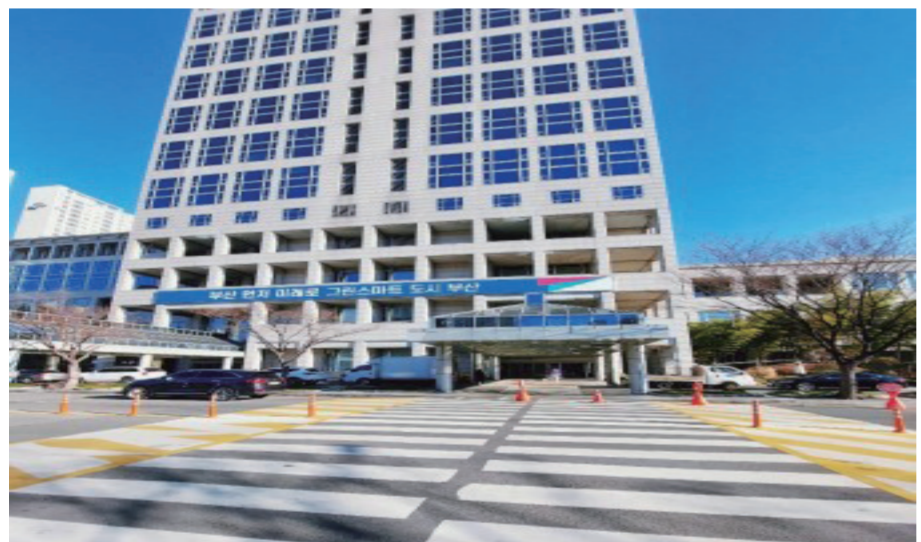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진압과 대피를 도와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소중한 분들에게 안전을 선물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연장대상자 확대 추진

박형준 부산시장, "임신 후 출산대기 신혼부부가 대출 연장제도 개선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웃음꽃을 피울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지원 기간 연장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

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이 사업의 현 조례상 연장대상자는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다. 연장대상자는 최초 2년의 사업지원 기간을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임신한 자도 연장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사업참여자들의 개선요청 목소리를 반영해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며 연장대상자 확대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시 관계자는 임신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므로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 예정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 완화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연장요건을 개선하게 됐다며 개선 취지를 밝혔다.

향후 조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

련되면, 시는 협약기관인 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부 사항을 수립해 오는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월 중 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임신 후 출산을 기다리는 신혼부부가 대출 연장제도 개선으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돼 웃음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 영천시,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영천시지회 520만원 장학금 기탁



지난 31일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영천시지회에서 520만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영천시지회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에 따라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업무 지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을 목표로 현재까지 영천의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방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영천의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천420만원을 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

김양섭 회장은 "회원들과 뜻을 모아 영천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영천의 성장 동력인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훌륭히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기문 이사장은 "영천과 영천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김양섭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는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꿈을 향해 정진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반식/기자

# 청송군, 떡국 나눔 행사로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 동참

윤경희 청송군수, "온기 나눔 릴레이를 위해 동참해 주신 자원봉사단체와 기업에 감사, 사랑의 온기가 지역 곳곳에 퍼져 따뜻한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청송군은 지난 29일, 설 명절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추진하여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였다.

이번 행사는 청송군새마을회(회장 권동준)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136개리 마을별 중·장년 취약계층 2가구씩 총 272가구를 대상으로 설맞이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은 떡국 고명, 한우 사골, 떡이 담긴 밀키트를 포장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특히 떡은 지난해 12월 19일 한국쌀전업농

청송군연합회(회장 남희수)에서 기부한 쌀로 만들어 더욱 뜻깊었다.

또한, (주)동진통신(前 재구청송군향우회 회장 김영섭)은 1천만원 상당의 돼지목살 포장육을 후원해 온기 나눔 릴레이에 따뜻한 마음을 보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온기 나눔 릴레이를 위해 동참해 주신 자원봉사단체와 기업에 감사드리며, 사랑의 온기가 지역 곳곳에 퍼져 따뜻한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제2회 영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운영위원회 개최

## 한마음 한뜻!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대다!!

영양군은 지난 31일(수),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제2회 영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위원회'를 개최했다.

「영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위원회」는 영양군 로컬푸드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회 설치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마련을 위하여 2022년 4월 조례 제정과 함께 구성되었으며, 당연직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해 소속 공무원, 생산·가공·유통 주제별 참여 주체, 군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는 개장 이후 3년여 기간의 운영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했으며, 주요 안건에는 직매장

장 탄력근무제 실시, 통합마케팅 적극 실현을 위한 수수료율 조정, 로컬푸드 매출 확대 및 집객 효과 거양을 위한 전용 상품권 출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 보다 품격 높은 안전을 심의하고 위원들과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하여 앞으로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박준로 위원장(영양군 부군수)은 "급변하는 현대화로 인한 서구화된 식생활은 영양군민들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할 것이며, 중·소·고령·

여성농들의 소득 기반을 위한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통하여 소비자와 상생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문경시 드림스타트 아동지원 업무 협약 체결

문경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30일, 문경시학원연합회 등 56개 후원업체와 드림스타트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경시학원연합회 10개소, 방문학습지 4개소, 대한미용사회 문경시지부 22개소, 문경시안경사협회 15개소, 제과제빵업체 3개소, 관내 방역업체 1개소 및 수업교재 지원업체 1개소 등 총 56개 업체가 참여했다

각 업체에서는 10%~최대 43%까지 후원하기로 했으며, 특히 관내 방역

업체 1개소는 작년에 이어 필요한 가정용 방역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 주기로 협약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여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특기적성 학원 연계를 통해 아동 개개인의 소질을 개발하고 안경 지원, 이·미용 서비스 지원, 생일케이크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게 됐다.

남상욱 행정복지국장은 "지역사회의 후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적극 발굴 및 연계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선일/기자



# 구미시, 지역업체 계약 최우선...지역경제 살린다

구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 △발주내역 사전 검토를 통한 지역업체 계약을 증가 △지역 기어 우수 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을 위한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찰 대상 발주 공사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발주계획을 수립.검토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의 입찰 대상 금액의 발주 공사에 대해 공중청, 공구별, 시기별로 분할 가능 여부를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함께 적극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4억 원 이하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 기타공사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형태인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또한, 설계 및 물품구입 계획 단계에서 관급자재, 물품의 관내 생산품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를 반영해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

지역 생산품이 있는 데도 잘 알려지지 않아 관급 계약에 소외된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협업하고 업체 소개서를 접수해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공사 또는 행사 용역 계약을 할 때 업체의 관내 하도급, 장비, 인력 활용 실적, 소속 임직원의 관내 주소 비율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연간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늘리고, 수의계약 낙찰률도 기존 90%에서 최대 95%까지 상향 적용한다.

김동현/기자



#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꼭『128』기억하세요!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사전홍보-상황실운영-사후관리 3단계로 실시 환경오염행위는 환경신문고(128 또는 110)로 신고

경상북도는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단계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시기를 악용하여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상수원 상류 지역,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 폐수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단계로 나누어 관리한다.

1단계는 설 연휴 전 2월 1일부터 8일까지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2,274개

소를 대상으로 협조문을 발송해 자율적인 사업장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등 사전 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단계는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창구(국번없이 128 또는 110)를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낙동강 중·상류지역 주요 하천과 지천, 공단 배수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오염 행위 감시 순찰에 총 84개 조 124명을 투입하여 환경 사고를 예방한다.

3단계는 설 연휴 이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연휴 기간 중 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한 환경관리 취약 업체와 영세업체 40개소에 대해 환경기술인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조현애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연휴 기간에 체계적인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로 도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128 또는 110)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상주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동참

상주시의 동계청소년올림픽 범 조성 및 2025 APEC 경주 유치 홍보에 적극적인 동참하는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하는 모습이 크게 돋보여' 강영석 상주시장,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상주시가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또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상주시민이 응원하겠다"고 밝히

상주시)는 지난 30일(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에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기원하고, 2025 APEC 경주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진행했다.

이날 상주시에서는 40여 명이 참여하여 크로스컨트리 경기기를 관람하고, 경북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APEC 경주 유치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또한 각종 행사장 및 주요 관광지를 현장 체험하며 시책 접목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전 세계 청소년들의 꿈의 대제전인 동계청소년올림픽

에 상주시가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며 "또한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상주시민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올림픽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1월 19일(금)부터 2월 1일(목)까지 강릉시, 정선군, 평창군, 횡성군 4개 지역의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78개국 1,802명의 청소년 선수와 참가하여 7개 종목, 15개 세부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김동현/기자



# 남해군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

'청사 및 의회 : 1+1 설계안' 설명...의견 청취  
장충남 군수, "건축비 급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경청, 남해군 최적의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히

남해군은 지난 29일, 남해마늘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간 추진 사항과 변경된 설계안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일선 마을 이장과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남해군은 군민 의견 청취에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설계 변경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남해군은 당초 5개의 건물로 구성된 신청사 설계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급등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설계안 변경이 불가피했다.

또한 문화재청의 '남해읍성 유적의 현지 복도보존 조치' 및 행정안전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사업비 축소' 결정을 반영해야 했다.

이에 남해군은 '청사신축 추진위원회'와 '청사신축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2월 '청사 1동, 의회 1동'으로 구성된 설계 변경안을 마련했다.

'청사 1동, 의회 1동'안은 신축 후에도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



다. 또한 남해군은 ▲효율적인 내부동선 ▲중앙광장과 연계한 접근성 향상 ▲주민편의공간 확충 ▲채광 및 환기 개선 등의 계획을 다듬어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군민들은 ▲청사 내 음성 주변 주차계획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에너지 자립률 향상 ▲첨단 AI 시스템 도입을 통한 민원서비스 증대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장충남 군수는 "몇 년 사이에 건축비가 급등하면서 설계변

경이 불가피했다"며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남해군 최적의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과 관련한 민간 편입건을 철거율은 90%에 이르고 있다. 문화재 발굴조사와 문화재청 심의도 마쳤다. 발굴된 유적은 보존되고 역사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신청사 건물은 음성 터와 이격해 들어설 계획이다.

이용준/기자

# 봉화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유입 차단 총력 대응

## 봉화읍 문단리 양돈농장 인근지역에서 멧돼지 폐사체 ASF 바이러스 검출



봉화군은 지난 25일 봉화읍 문단리 농경지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양돈농장으로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 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점은 문단리에 위치한 7천200두 사유규모의 D농장과 1.2km, 1천800두 사유규모의 S농장과 1.8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역 양돈농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검출상황을 즉시 전파하고, 인근 야산 출입금지,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축주에 대한 방역관리수칙을 SNS를 통해 교육하고, 발견지점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을 방역지역으로 지정해 군 방역차량과 축협공방단 방역차량을 동원해 농장입구부터 발견지점 인근 도로변까지 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는 농장출입 금지와 차량과 사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홍보 현수막 40매를 읍면 현수막 걸이대와 농장입구에 게첨하고, 보유중인 생석회 10톤, 소독약품 500리터, 휴대용 살균소독제 200통, 야생동물 기피제 500kg을 긴급 배부한 바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2022년 12월 이후 석포면을 시작으로 최근 봉화읍까지 10개 면 읍면에서 75건의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양돈농장에서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손 세척, 장화갈이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월 31일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2019년 양돈농장에서 발생 이후 경기, 인천, 강원, 경북 15개 시군에서 40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44개 시군구에서 3천578건이 검출됐다.

윤근수/기자

# 의성군, 축산농가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 신청 접수

김주수 의성군수, "한우 가격 급락과 사료값 폭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성군은 한우 산지 가격 급락과 사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월 14일까지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신규 사료 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사용되며 용자로 2년간 금리 1.8%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에 의성군은 약 9,832백만원의 사료정책자금을 확보했으며, 올해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상당한 정책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받



은 축산농가/법인이며, 선정이 되면 의성군으로 부터 '농가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한우 가격의 급락

과 사료값의 폭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 정책자금과 같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 예천군, 환경담당 공무원 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

## 탄소중립 실천을 향한 신규 시책 설명과 현장 교육 등의 기회 가져

예천군은 지난 30일 오전 11시, 환경관리과, 읍·면행정복지센터 공무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업무 담당자 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는 순환매립장에서 시작해 생활폐기물 반입기준 및 처리과정에 대해 현장 교육을 진행했으며, 군청 정보화교육장으로 이동해 영농환경심사제, 친환경차 보급사업 등 신규 환경시책 및 변경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유류 유출사고 등 시설 관리요령, 슬레이트 처리,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와 종량

제봉투 관리요령 등 분야별로 환경관리과 업무담당자가 설명하고 상호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군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환경업무 연찬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신규 시책인 영농환경심사제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한걸음 더 나아가갈 것이며, 연찬회를 통해 담당자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 안동시, 안팎으로 사통팔달 뚫린다

사통팔달 철도, 도로 교통망 구축, 수요자 중심 교통체계 서비스 제공 -  
권기창 안동시장, "도로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을 잇는 경북권역 교통의 중심지로  
「모든 길은 안동을 통한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

안동시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철도, 도로망 등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중앙선 복선화 사업으로 청량리역에 2시간이던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노선이 서울역까지 연장되며 2시간 30분이면 안동역에서 서울의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30분가량 더 단축돼 수도권 접근성이 더욱 크게 강화된다. 남부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안동-영천 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2025년 준공 예정이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으로 통하는 안동-의성 간

전철 구축도 추진 중이다.

또한 현재 건의 중인 문경-안동 간 철도연결이 실현되면 서울 강남 및 수도권 관광객에 대한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우수기업 유치 등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사통팔달 간선 도로망이 구축된다, 안동과 도청을 잇는 국도 34호선 확장공사(1,776억 원)가 현재 설계 중이며, 영덕 방면 국도 선형 개량공사(2,041억 원, 2025년 완료 예정), 포항 방면 국도 확장(2,667억 원, 2026년 완료 예정), 용성-교리 간 우회도로 건설공사(3,250억 원, 2025

년 완료 예정) 조기 완료 등 동서 교통망 정비에 박차를 가해 경북 북부권 발전을 이끈다.

옥수국 확장공사(255억 원), 포진 1교 확장공사(235억 원), 교리교차로-터미널 확장공사(235억 원) 등을 통한 도심 간선 순환도로망 구축과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35억 원) 운영으로 도심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한편 현재 19개 읍면동, 179개 마을

에 운영 중인 행복택시(19.7억 원)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추가로 11대 도입(17.8억 원)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지역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할 사통팔달의 거미줄 교통망 구축으로 가까이는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대할 뿐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서 통합신공항 배후 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접근성 강화에 따라 바이오산업, 문화 및 관광산업 등 안동시 역점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도로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을 잇는 경북권역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라며, "앞으로 '모든 길은 안동을 통한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202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 개시! 1인당 13만원 지원

## 경북에서 문화누리카드 첫 결제하고 기프트콘 받자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문화누리카드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센터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전화 ARS(1544-3412)로 신규 발급하거나 재충전할 수 있다.

카드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미사용 금액은 전액 소멸하므로 연말까지 모두 소진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경북도내 16만 명 정도)으로 발급되며, 올해는 지원금이 작년보다 2만 원이 늘어난 13만 원이다.

카드에는 ▲문화예술(도서, 영화, TV, 사진, 지역축제 등), ▲관광(철도, 시외·고속버스, 운전, 테마파크 등), ▲체육(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 분야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발급·사용 개시와 동시에 '첫 결제

이벤트'를 시행하고 '경북문화누리 꾸러미' 가맹점을 모집한다.

경상북도 카드발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첫 결제 이벤트'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행되며, 2024년 첫 사용내역을 경북 문화누리 채널 추가 후 카카오톡 1:1 채팅으로, 또는 경북문화재단 누리집(홈페이지) 내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기프트콘을 제공한다.

'경북문화누리 꾸러미'가맹점 모집을 2월 말까지 진행한다. 모집대상은 13만 원 상당의 꾸러미로 구성된 상품을 제작·제공 가능한 도내 전화 결제 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한다.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소중한 재원으로 지원된 문화누리카드사업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길 바라며, 앞으로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통영시는 오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3회 통영시장배 전국 유소년 농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영시가 주최하고 통영시농구협회

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총 45개팀이 참가하며 선수단, 관계자, 가족 등 1,600여 명의 방문이 예상된다. 경기는 초·4·5부는 통영체육관, 초·6·중·1부는 충무체육관, 중·2·중·3부는 통영중체육관에서 펼쳐진다. 대회 마지막 날인 4일 오후 1시 30분 초·5부 결승전에 이어 시상식이 통영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겨울철 관광 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농구 꿈나무들이 통영에서 마음껏 기량을 뽐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도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들의 쾌적한 경기 관람을 위해 교통 대책 마련

및 친절한 손님맞이 등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농구대회 개최에 앞서 지난 27일부터 2월 1일 6일간 9개 선수팀을 포함해 약 300여 명이 참석한 '2024 동계 유소년 농구 스토브리그'가 통영체육관 및 충무체육관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용준/기자

# 제3회 통영시장배 전국 유소년 농구대회 개최

## 전국 농구 꿈나무 통영으로 다 모여라!

# "희망의 여정 함께합시다!" 오도창 영양군수, 군민과 소통의 시간 가져

오도창 영양군수, "민선8기 행복만 변화 희망찬 영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영양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혀



오도창 영양군수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30일부터 3일간 일월면을 시작으로 6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본지 취재진은 2일차인 지난 31일 오후 2시, 방문지인 청기면사무소를 찾아 오도창 영양군수의 군민과 소통의 시간을 일일이 살펴봤다.

이날 청기면 소회의실에는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 실국장, 안옥선 청기면장 및 간부진들과 청기면 발전협의회 임원진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기면 김중완 부면장의 사회로 개회사, 국민례, 안옥선 면장 인사말씀, 참석 내외빈 소개, 오도창 영양군수에 의한 '희망의 여정 함께 합시다'란 2024년 군정운영 계획 설명,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폐회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오 군수의 방문은 휴수동행(携手同行)을 신년화두로 군민화합의 의

지를 담아 각 읍·면의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군민대표에게 이날 양수발전소 유치를 포함한 2023년 주요성과 설명과 영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4년 군정 주요역점사업을 오군수가 직접 설명하므로써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군민대표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날, 2024년 주요핵심 추진 분야는 경쟁력 있는 농업, 미래지향 '부자농촌', 사통팔달, 안전한 '도로망 확충', '생태관광, 생활인구 유입' 등 농업, 교통, 관광 분야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마을의 불편한 점을 적극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모든 정책은 군민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라며 "민선 8기 행복만 변화 희망찬 영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영양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도창 영양군수는 청기면을 살찌우기 위한 안면장의 열정과 노력을 진심으로 치하하면서 청기면이 영양군을 선도한다는 각오로 더욱 이장들과 지역기관장들과 뜻을 모아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청송군 각계 각층 줄이든 성금기부로 이웃사랑 실천해

청송문화원, 대한적십자사 청송 진보 봉사회, 이웃돕기 성금 기부해  
윤경희 청송군수, "보내주신 성금은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곳, 관내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송군은 연인은 각계 각층의 성금기부로 이웃사랑이 몸소 실천되고 있다. 먼저 대한적십자사 청송·진보 봉사회는 희망마을 나눔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 100만원을 청송군에 기부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청송·진보 봉사회는 주1회 독거어르신에게 반찬나눔 봉사활동과 다양한 이웃사랑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봉사단체이다.

또한, 청송문화원은 지난 29일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청송군에 기부했다. 청송문화원은 각종 문화행사와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2024년 문화원 정기총회에 임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성금을 기부하여 이웃사랑 나눔에도 동참하였다.

이성우 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손길에 필요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청송·진보 봉사회의 이웃사랑 실천에 감사드린다" 또한, "청송문화원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보



내주신 성금은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곳, 관내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 출향인사, 수도권 중심에서 글로벌 허브도시를 외치다!

박형준 시장,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상반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출향인사들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혀

부산시는 지난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시,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 「부산 출향인사 신년인사회」를 열고,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시장과 부산상의 회장, 그리고 시 주요 간부들을 비롯, 대한민국의 주축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수도권 지역 출향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의 캐치프레이즈는 '부산이즈 비기닝(Busan is Beginning)'이다. 이는 부산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발전축으로 만들기 위해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할 당시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다시 도약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외친 부산 이즈 비기닝(Busan is Beginning)을 따온 것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추진과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스토리텔링 비보이 공연



▲박 시장의 부산 미래 비전 브리핑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세리머니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오프닝 공연인 스토리텔링 비보이 공연은 가덕도신공항, 부산신항, 북항, 부(BIFC), 광안대교, 영화의전당 등 부산의 현안 사업지와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미래 모습을 대형 화면에 송출하면, 비보이가 그에 맞춰 이야기를 풀어내듯 공연을 펼쳐 출향인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메인 행사인 부산 미래 비전 브리핑에서 박 시장은 부산을 홍콩,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특히, 사람

과 기업, 자금이 함께 몰리는 세계적인 도시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세제감면을 통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그 첫 단추로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법률적 기반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올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세리머니에서는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필수요건인 철도, 항만, 항공, 금융, 신산업, 교육, 문화를 출향인사들의 힘을 모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며,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축하공연은 부산 출신 가수 최백호

김희태/기자

# 대구도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시면 은누리상품권 드려요!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구입 금액의 30%를 은누리상품권으로 환급(최대 2만 원)해 주는 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 물가 안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오프라인 환급 행사로 당초 전통시장 대상에서 일부 도매시장에도 확대 추진한 것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참여한다.

오는 2월 2일(금)부터 은누리상품권 소진 시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구입하면 시장 내 환급 장소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은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8천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 8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 1인 2만

원 한도로 제공된다. 이번 행사에는 총 5천만 원 상당의 은누리상품권이 제공되며, 상품권 조기 소진 시 행사는 종료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시민들은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윤근수/기자



# 청도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간담회 실시

## 청도군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멘탈 드림팀(Mental Dream Team)'

청도군은 지난 30일 청도군치매안심센터에서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의 참여기관은 청도군보건소, 청도군정신건강복

지센터, 청도경찰서, 청도소방서, 관내 정신의료기관 3개소(청도대남병원, 하나병원, 청도메타병원) 7개 기관이며, 각 기관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협의체 주요 내용은 정신응급 대응 현황 점검 및 문제점 분석, 위기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자살예방 시설 현황,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안전망을 더욱 강



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저출생 극복 위해 경상북도 청년정책 관계관은 열공 중!

## 31일 도청에서 도 및 22개 시군 청년정책 관계관 워크숍 개최 - 저출생 극복 위한 우수 청년정책 공유하고, MZ트렌드에 대한 특강 실시

경북도는 지난 30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및 22개 시군 청년정책 담당 부서장 등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청년정책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2024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추진 방향과 현안 사항 등을 전달하고, 청년 나이 등 청년정책 관련 시군 관계관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 했다.

이날 경주시의 청년 이사회 지원 사업, 구미시의 스텔웨딩테마 결혼스토리 문화공간 조성, 의성군의 청년정책 발

전 전략과 같은 우수 청년 정책을 참석 시군 간 공유했다.

정은우 대학내일 전략본부장의 'MZ 청년 추세 및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한 특강으로 참가자들은 청년세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에 반영할 방안 에 대해 고민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초저출생 극복의 답은 청년이다. 오늘 만남을 계기로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다지고 도와 시군의 유기적으로 융합된 청년정책을 고안해 청년의 정책 체감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설맞이 '울진사랑카드' 결제한도액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월 한달간, 월 100만원 사용 시 캐시백 10만원 지급

울진군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울진사랑카드 결제 한도액을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한도액 확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민의 내 고장 상품 소비, 유통 촉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울진사랑카드는 평상 시의 경우 월 50만원 결제 시 10% 캐시백(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설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하여 월 100만원 결제 시 10% 캐시백(10만원)을 지급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사랑카드 캐

시백(인센티브) 제도는 울진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사랑카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누적 발행액 1,42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울진군에서는 소상공인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당초 예산에 37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예산이 확정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장문화/기자



# '청렴으로 내딛는 공직생활의 첫 걸음!' 포항시 신규임용자 대상 청렴교육

## 이해하기 어려웠던 반부패·청렴 법령을 실제 사례로 알기 쉽게 짚어줌

포항시는 지난 30일,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다목적실에서 신규임용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정환 전문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이해 충돌방지법에 대해 실제 위반 사례를 중

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내어 진행됐다.

또한 최근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갑질'에 대한 교육도 유쾌하게 풀어내며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윤태용/기자

포항시 관계자는 "오늘의 교육으로 올바른 공직 가치와 청렴 의식을 함양한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시민과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공직 가치가 앞으로 펼쳐질 공직 생활의 더 큰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윤태용/기자



#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 읍면 산업경제팀 2024년 주요 농정사업 공유 회의 가져

군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0일, 읍면 산업경제팀과 2024년 주요 농정사업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금년도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선도도시 군위로 만들기 위한 회의를 했다.

군위군 주요농정 사업은 약 150가지로 농업기술센터 각 팀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 주요농정 지침서로 만들어 읍면에 내용을 공유하며, 금년도 농정사업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했다.

또한 군위군 농어민수당,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 등 실질적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홍보강화를 요청하고, 넓어진 농산물 소비·유통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의 푸드플랜 유통 거점을 마련하는 등 대구 농업정책의 표준이 되는 K-농업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약속했다.

군위군 사공열 농정축산과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직원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살맛나고 활력넘치는

농촌을 구현하여 군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경산시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소통 간담회 성료

## 상상을 넘는 경산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경산시는 간부 공무원과 대한노인회경산시지회(지회장 최재림) 임원진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산시는 어르신들의 고견을 듣고 노인복지 정책 대한 협력과 소통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노인복지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보냈다.

최재림 지회장은 "경산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경산시에 대한 노인회 경산시지회가 손을 잡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어르신들은 지

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은 경산시의 번영과 직결된다.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가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경산시는 어르신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경산, 상상 이상의 경산 발전을 위해 열린 자세로 어르신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1981년 5월 19일에 설립된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읍면동 경로당 지도자 육성, 취업 지원센터 운영, 노인 교육시설 운영 등 경로당 어르신들을 건강과 여가, 교육, 복지를 아우르는 현장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동현/기자



# Z O O 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숲

한글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박사추념비를

길

조지훈박사추념비를 따라 걷는 길, 조지훈박사추념비를 따라 걷는 길, 조지훈박사추념비를 따라 걷는 길

물

영양군립자연휴양림, 영양군립자연휴양림, 영양군립자연휴양림

빛

영양군립자연휴양림, 영양군립자연휴양림, 영양군립자연휴양림

얼

영양군립자연휴양림, 영양군립자연휴양림, 영양군립자연휴양림

맛

영양군립자연휴양림, 영양군립자연휴양림, 영양군립자연휴양림

심

영양군립자연휴양림, 영양군립자연휴양림, 영양군립자연휴양림

## 영양 들머리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간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해계곡, 분신계곡, 침벽공원, 축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경산선,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자연휴양림,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휴양림,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생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 강원도,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온라인 신청) 2. 1.~2. 29.(1개월), (방문 신청) 3. 1.~4. 30.(2개월)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비대면 신청·접수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개별 문자 발송(카카오톡) 내용을 참고하여 기본직불금 간편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후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

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안내 될 예정이다.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농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23년까지는 ha당 120만원이었으나 '24년 부터는 10만원 인상된 13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역전적 단가로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신청접수(2~4월),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5~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해 8만3천 농업인들에게, 1천4백억 원을 지급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석성군 농정국장은 "신청기간에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청접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본형공익직불금 지원대상 농업인 모두가 신청기한 내 신청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동원/기자



# 아산시, 설 명절 연휴 대비 가축방역 특별대책 추진

24시간 긴급방역 대비체계 구축

아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 방문객 등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가축 전염병 차단 강화를 위해 '설 명절 대비 주요 가축전염병(AI·ASF 등)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설 연휴(9일~12일) 기간에는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연휴 직전과 직후인 8일, 13일을 '축산농가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가금·양돈 농장과 축산관계 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명절 연휴 기간에도 시·축협 공동방제단, 농림부 지원 소독차량 등 가용자원 총 6대를 활용해 철새도래지와 산란계 농가, 방역취약 가금농가, 산간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취약 농가 등을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김정규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병 발생 위험시기인 만큼 축산농가들은 농장 내·외부 소독 강화, 농장 내·외부인 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 충남도 '디지털 산업 육성·활성화' 기본계획안 나왔다

도, 지방정부 최초 디지털(ICT·SW) 산업 육성·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확정·발표

충남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디지털(ICT·SW) 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중기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최종안에는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 힘센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 산업분야 정책운영의 기본을 마련과 중점 추진 정책사업 분야를 발굴·유지·확산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2026년까지 1393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31일 도청 회의실(510호)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충청남도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남도 디지털 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최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목표는 △디지털 분야 산업체 총사자수 2021년 기준 4만 6000명에서 2026년 6만명으로 확대 △특허출

원건수 2022년 70건 대비 2026년 120건으로 확대 △2026년 누적 3만명 인재양성이다.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재원투자 규모는 △디지털산업 신기술 개발 및 확산지원 12개 과제 589억 9400만원 △디지털 혁신 기반조성 9개 과제 533억 4300만원 △디지털 인재양성 체계 구축 5개 과제 269억 7100만원 등 총 26개 중점추진과제 1393억원이다.

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중 전통적 제조업분야는 전국 3위권의 지식재산권(특허)을 출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업(ICT·SW)의 경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관련 분야 학과 재학생 규모도 2만 9403명으로 전국 4위권이지만 도내 기업의 주요 경영 애로사항이 '신규인

력 수급' 정도로 구인·구직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도는 해당 분야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시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유제품 산업경제실장을 단장으로 도 관련부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30여 명 규모의 기본계획 수립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그동안 10여 차례 온·오프라인 실무회의와 전문가 및 학계·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3차례의 전체 대면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12월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도는 최종안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소프트웨어(SW) 진흥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충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추진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이어 기업지원, 기반조성, 인력양성

을 위한 협력기관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유해 중점과제별 추진 속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확정된 최종안을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중장기 전략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대체계획으로 활용하면서 국가 디지털정책과도 연계하여 적합한 정책사업을 연계·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전형식 부지사는 "이번 기본계획안은 2026년까지 1차 계획으로 우선 디지털 분야 공급기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장지원·인재양성·기반조성 3개 분야를 입체적으로 치밀하게 추진해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 충남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 원주시, 2024년 평생학습 재능기부 참여자 및 활동처 모집

2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수시모집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4년 원주시 평생학습 재능기부 참여자와 활동처를 수시모집한다.

재능기부 참여자는 평생교육 강사와 학습동아리 등 자신의 재능을 무보수로 나누주고 싶은 개인 또는 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재능기부 활동처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관내 경로당, 요양원, 복지관 등 관할인원 15명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

학습관 또는 교육강좌에 약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매월 희망 활동처 2개소와 1~3개의 재능기부팀을 연계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전체천 학습관장은 "평생학습으로 배운 재능을 지역의 소외계층과 함께 나눔으로써 재능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2024년 원주시 평생학습 재능기부 참여자 및 활동처 모집**

모집기간: 2024. 2. 1.~11. 30.

**재능기부 참여자**

- 신청대상: 평생교육강사 및 학습동아리 등 자신의 재능을 무보수로 나누어 주고 싶은 개인 또는 팀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재능기부 분야: 공연, 체험, 생활밀접 등
- 운영방법: 활동처에서 희망분야의 재능기부팀 연계
- 활동장소: 경로당, 요양원, 복지관 등

**재능기부 희망활동처**

- 신청대상: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경로당, 요양원, 복지관 등
- 신청분야: 공연, 생활밀접, 체험 등(체험일 경우 재료비는 기관부담)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관람인원: 15명 이상
- 운영방법: 재능기부 참여자와 연계하여 방문공연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고

문의: 평생교육원 학습관 (737-3808)

김정환/기자

# 태백시 자원봉사센터, 1월 '이달의 태백봉사왕' 시상

태백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6일 1월 '이달의 태백봉사왕'으로 박재원님을 선정하고 시상을 가졌다.

박재원 자원봉사자는 겨울철 태백산 등반객 안전 캠페인 및 구조 활동과 주기적으로 우범지역의 야간 자율방범활동으로 12월 한 달간 총 10회, 56시간 활동을 하였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36회, 1,159시간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태백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태백시 곳곳에서 봉사를 펼쳐주시는 모든 봉사자분께 감사드리며, 태백자원봉사센터는 적극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태백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과 가치확산을 위해 매월 활동실적이 가장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이달의 태백봉사왕'으로 선정하고 시상하고 있다.

유상근/기자



## '이자부터 신용회복까지' 학자금 대출 부담 서울시가 줄여준다

올해 청년 3만 5천명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작년보다 2,500여명 확대

# 취업이 못 해 대출이자 상환여력이 없었는데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 덕분에 마음 편하게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고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감소해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또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 의자가 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약정 후 채무금액의 일정부분(5%)을 서울시가 대신 납부해 신용회복도 돕는다.

서울시가 2월 1일부터 상반기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1만 8,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35,000명으로 하반기에 나머지 인원은 모집 예정이다. 신용회복 지원자도 10월까지 모집한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업 유지를 위해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 하나다.

최근 3년간 서울 청년의 학자금 상환(ICL) 대상 금액과 미상환 체납금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22년 기준 상환 대상 금액은 약 223억 원 규모며, 이중 미상환 체납 비중이 약 68%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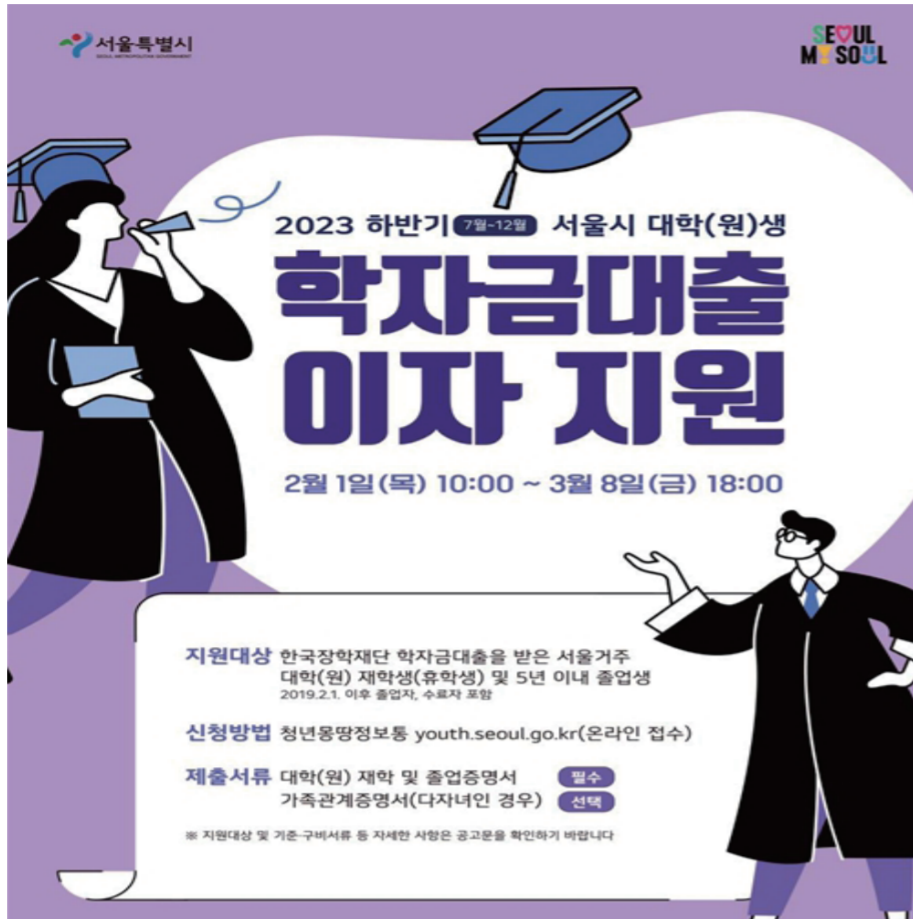
또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 의자로 등록되어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사회금융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학자금대출로 인한 전체 신용유 의자 중 77%나 된다.

올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지난해 32,485명보다 2,500명 늘어난 35,000명(상반기 18,000명, 하반기 17,000명)이 대상이다. 예산도 전년대비 2억여원이 늘어난 38억 6,000만원이다.

지난해 시는 총 32,485명의 학자금대출 이자 32억 6,400만원을 지원했다.

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납야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신청자 중 본인 또는 부모가 두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소득 1~7분위에 대해서는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8분위는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한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신청은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3월 8일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매년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은 각각 이를 확인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2월 1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와 지원 이자는 6월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도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 의자로 등록된 서울 거주 청년들에 대

한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청년들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신용유 의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 필요한 채무금액의 5%를 서울시가 재단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총 115백만원을 지원해 총 309명의 청년이 신용유 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모집인 500만원이 더 신청은 모였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 의자로 등록해제를 원하는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은 2월 1일 10시부터 10월 18일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이 고액의 학자금과 소득 격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을 받고,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시 사회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부채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정부,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재발 방지와 재도약 기반 마련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1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장애 대처 과정에서 신속한 인지·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원·행정처리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30년간 디지털정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며 누적된 복잡성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노후화 및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제도와 국민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장애관리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전략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이며, 각 추진전략에 포함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사전예방 및 대비 철저  
먼저, 위험징후 상시관제체계와 범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특히,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관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하고, 장애징후 알림기준을 강화하여 장애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행정·공공기관의 복잡하게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신속 파악해 대응하기 위해 통합모니터링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실시하고, 효율적 관제를 위한 장애예측 모델개발 등 관제 고도화도 추진한다.

타 시스템으로의 장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 분산형 구조도 적용할 계획이다.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격벽'을 구축하고, 특정 인증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장애 전이 방지와 유연한 장애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보안성에 문제가 없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는 등 민관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장비 결함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시스템 간 연계 현황과 영향도를 분석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정기적 확인이 필요한 예방점검 항목과 세부 기준을 통합 표준매뉴얼에 마련하고, 각 기관은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한정된 운영·관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등급을 신설한다.

업무영향도, 사용자 수, 파급도를 고려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여 전체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산정할 계획이며 노후장비 교체, 유지관리 효율 적용 등 등급에 따라 시스템관리와 예산 배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장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등급과 별도로 '장애등급'을 설정하고 대국민 알림 기준 및 동시 장애 시 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2. 신속한 대응·복구로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사전예방-상향대응-재발방지의 환류(Feedback) 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민관합동 안정성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키텍처·소스코드

분석과 성능점검 등 각급기관의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한다.

또한,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 총괄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전문적·객관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시 민관합동 장애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하며, 장애 사후관리 의무화와 시스템상 관리로 향후 동일 장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장애상황 전파와 복구지원체계 강화로 중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내부 체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안전상황실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신설하여 장애현황에 대해 신속히 접수·파악해 유관기관들이 장애를 신속히 인지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장애 발생 시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한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별 민·관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하고, 신속 대응을 위해 복구 작업에 이용한 정보자원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사후정산 절차도 마련한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 시에도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국민 알림 및 불편 해소 절차를 마련한다. 각 정보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장애 등급, 영향도를 고려한 안내기준을 마련하여 장애 상황 시 기관 홈페이지뿐 아니라 민관플랫폼·국민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 발생 시의 접수·처리 절차도 마련한다.

3. 안정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  
장애 등급, 영향도를 고려한 안내기준을 마련하여 장애 상황 시 기관 홈페이지뿐 아니라 민관플랫폼·국민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 발생 시의 접수·처리 절차도 마련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직·인사체계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핵심운영업무의 업무전문성을 높인다.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공공부문 내부 정보화 역량도 제고한다.

찾은 업체·직원 변경, 영세 유지·보수 사업체로 인한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유지보수사업 통합 발주, 구축·유지보수사업 일괄발주 및 2~3년 이상 장기계약 확대 등 정보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IT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연봉상한을 폐지 적용하고, 전문직위를 확대하여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행정응원을 활성화한다.

기업규모에 따른 공공정보화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화사업의 참여여건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등 최신기술 적용을 통한 정보화사업 선진화를 위해 '실제·계획 사업'과

7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산출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또한, 우수 개발자의 참여와 개발품질 향상을 위해 임금·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기준을 상향하고, AI등 신기술 과업의 대가 선정기준과 과업 변경 심의 가이드라인도 도입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사업 수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사업대가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조달청과 과기정통부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만을 적용했으나, 계약과정에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발주기관의 다양한 요구도 충족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입찰·계약 단계에서는 과업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적극 권고하여 불합리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고,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로 변별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상생협력 평가' 지분율과 배점을 조정하여 주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하여 갈등중재를 지원하는 한편,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전문성 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전담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도 검토한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인프라 복원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오류가능성이 높은 전산장비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해·재난 뿐만 아니라 장애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전자서명(GPKI), 모바일 신분증 등 공동기능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Multi-Region)을 적용한다.

또한, 재해·재난 상황 시 복구시스템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인 실전형 전환훈련을 실시하여 상시 준비태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2월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재발방지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대규모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위상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 대구광역시, 민간 전문가와 손잡고 투자유치 총력!

1월 31일 전략적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자문관 전략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미래 50년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1월 31일 오후 산격청사에서 정장수 경제부시장과 투자유치 자문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자문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로 만들어질 거대한 신공항 경제권이 지역 내 투자유치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대구광역시는 산업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 자문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신공항 경제권 건인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회의를 발 빠르게 준비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대구광역시 투자유치 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우중운 전문위원의 '로봇산업 전망과 기업유치방안' 발제에 이어 5대 미래신산업 중심의 국내외 유망기업 투자유치 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광역시는 5대 미래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윈스톱 투자지원과 함께 뛰어난 투자환경으로 대구권 51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연간 7만 명의 졸업생과 135개 R&D 센터, IT·자동차·기계 등 분야별 특성과 대학의 인력양성을 통해 인력수급이 원활하다는 점과 8개 고속도로, 4개 국제항만, 산업선 철도, 대구경북신공항과 달빛철도 건설도 교통·물류의 최적지임과 전국 최상위 수준의 의료·교육·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우수한 정주여건 등을 설명했다.

또한, 올해도 5대 미래 신산업 중심의 국내외 영기업 유치와 더불어



어 신공항 경제권 내 국내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 동북아 거점기능 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알리고, 이를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민간 전문가들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투자유치 자문관들에게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공조 강화와 함께 유차 후보 기업 발굴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우중운 전문위원은 "글로벌 로봇산업 시장이 서비스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으로 진화 중인 상황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등 지역이 가진 인프라 강점을

기반으로 로봇 핵심부품 및 서비스 로봇 중심의 핵심 테크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대내외 투자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신공항 경제권을 견인할 전략적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활발한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윈스톱 대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및 국민신뢰 제고

#### 장애관리체계 철저 확립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상시장애예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험징후 상시 감시 강화</li> <li>2 위험분산형 구조 개선</li> <li>3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강화</li> <li>4 등급제 기반의 효율 관리</li> </ol>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신속대응복구</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통합 장애대응체계 구축</li> <li>6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복구 지원체계 마련</li> <li>7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대국민 안내 강화</li> </ol>
--	---

#### 디지털행정 체질 근본 개선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안정기반강화</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li> <li>9 공공부문 정보화 역량 강화</li> <li>10 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li> </ol>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사업수행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사업수행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li> <li>12 인프라 복원력 제고</li> </ol>
---	--

# 경북교육청, 일본 정부 독도 망언 규탄 성명서 발표

## 일본 정부는 독도 관련 망언을 즉각 철회하라

경북교육청은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 연설에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주장 즉각 철회,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동북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밝혔다.

임중식 교육감은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미래 세대에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을 주입하는 망언을 멈추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일본 정부 독도 망언 규탄 성명서

1.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 정부는 즉각 반성하고 철회하라
2.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이며, 일본의 왜곡된 독도 망언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도전이다.
3.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망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탄하며,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역사 왜곡을 멈추고 미래세대가 평화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2024. 1. 31.

경상북도교육감 임중식

# ‘예천교육지원청’ 순회 방과후 전문강사제 업체 제안서 설명회

예천교육지원청은 2월 2일 예천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 2024학년도 농산어촌 순회방과후 전문강사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청 위탁 업체들의 제안서 설명회를 통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초·중학교 19개교 중 14개교가 2024학년도 순회방과후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총 54개 클래스, 연간 3,388시간 순회방과후를 운영할 예정으로 희망 사업체는 관련 서류를 제출 하고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하게 된다.

농산어촌 순회방과후 전문강사제는 교육지원청에서 업체 위탁을 통하여 각 학교에 필요한 방과후 학교 강사를 배정하고 순회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로 예천교육지원청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천교육지원청 이창희 교육장은 “능력있는 순회방과후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하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격차 완화, 사교육 경감, 미래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선일/기자



# 95개 사립유치원 홈페이지, 새로운 얼굴로 새 단장!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사립유치원 홈페이지 운영자 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은 지난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안동·구미·경산·포항에서 총 4회 95명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홈페이지 운영자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홈페이지는 「2023년 도내 전체 학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추진 시 경북교육청 유치등교육과 및 사립유치원의 구축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희망한 95개 원에 대해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한 사립유치원 홈페이지를 2023년 12월 구축 완료하게 됐다.

이번 연수는 유치원의 기본정보 및 메뉴의 개설·수정, 회원 관리, 게시판 관리, 학부모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실습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홈페이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용휘 원장은 “이번 홈페이지 운영자 연수를 통해 사립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학부모가 편리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홈페이지 편의 기능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 사립유치원에서 쉽고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업무 안내서 개발

## 장애 학생 선정 배치 표준 안내서 신학기 전 배포



경북교육청은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도 교육청 스마트오피스 408호 회의실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업무 표준 안내서 개발 TF 최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6월 작성된 선정 배치 안내서 초안을 최종 마무리하여 2024년 표준 안내서로 배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방법 ▲장애 학생 진단 평가 ▲선정 배치의 과정과 절차 ▲재배치

▲유예 ▲학부모 면담 절차 등이다.

도 교육청은 2월 중으로 안내서 개발을 완료해 신학기 전에 도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포할 계획이다.

임중식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업무 표준 안내서 개발·보급을 통하여 특수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해 장애 학생이 장애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기초학력 전담 교사 57명 배치로 기초학력 보장

## 2021년부터 꾸준히 정규 교원으로 57명 배치, 저학년 학습 결손 예방에 효과

경북교육청은 3월 1일자로 도내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보장 지도의 길잡이가 될 기초학력 전담 교사 57명을 정규 교원으로 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목적으로 정규교사를 학교에 추가 배치하여 수업 내에서 담임교사와 협력해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의 학습과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담 교사 57명 중 44명은 공모를 통해 1, 2학년 학급 수가 6학급 이상인 학교 중에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이 많은 44교에 배치돼, 올해 3월부터 1년간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또는 수학 수업에 주당 16~20시간 ‘함께, 따로 공부방’을 운영하여 지도한다.

‘함께, 따로 공부방’은 교실 내에서는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집중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교실에서 개별 학습을 통해 학습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학습지원 방식이다.

또한 전담교사 57명 중 지역기초학력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역에 배치된 13명의 지정형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지역 내 학교를 순회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센터 운영과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게 된다.

3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많이 향상되었고, 일부 학생들은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수준에서 짧은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도 운용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85%, 담임교사는 90% 이상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맞춤형 지도와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학기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고, 기초학

력 심화 과정 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등 지도 효과를 더욱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임중식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정규 교원으로 지속해 지원되고 운영되면서 높은 만족도와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 수업 모델이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덕도서관, 2024년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천, 독서’ 프로그램 운영

## 너와 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우리 함께 독서해요!

2024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천, 독서 운영안내

인생의 단맛을 맛보려 합니다

- 1. 인생의 단맛을 맛보려 합니다
- 2. 인생의 단맛을 맛보려 합니다
- 3. 인생의 단맛을 맛보려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연월	주제	내용	대상	시간
1월	1월 1주	1월 1주	1월 1주	1월 1주
2월	2월 1주	2월 1주	2월 1주	2월 1주
3월	3월 1주	3월 1주	3월 1주	3월 1주
4월	4월 1주	4월 1주	4월 1주	4월 1주
5월	5월 1주	5월 1주	5월 1주	5월 1주
6월	6월 1주	6월 1주	6월 1주	6월 1주
7월	7월 1주	7월 1주	7월 1주	7월 1주
8월	8월 1주	8월 1주	8월 1주	8월 1주
9월	9월 1주	9월 1주	9월 1주	9월 1주
10월	10월 1주	10월 1주	10월 1주	10월 1주
11월	11월 1주	11월 1주	11월 1주	11월 1주
12월	12월 1주	12월 1주	12월 1주	12월 1주

영덕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 영덕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문화 형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천, 독서’ 프로그램을 전년도에 이어 운영 중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천, 독서’ 프로그램은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며 독서 관련 5개 프로그램 ▲인생문장: 당신의 문장을 완성해 드립니다. ▲원하는 대로 원화엔딩 ▲호호바다네 우체통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 ▲독서의 즐거움으로 진행 예정이다.

프로그램 중 <인생문장: 당신의 문장을 완성해 드립니다.>는 이용자가 좋아하는 문장 또는 책의 구절을 받아 캘리그래피 액자로 제작하여 독서의 흥미를 유발하고 책 읽는 독서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이다. <호호바다네 우체통>은 선물

하고 싶은 사람에게엽서와 추천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와 엽서를 수신자에게 발송 해주는 행사로 가족, 친구, 이웃 간에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행사이다. 그 밖에도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방문을 높이기 위한 독서 관련 강연 및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영덕도서관 이은영 주무관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긍정적인 독서 경험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의 자세한 일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영덕도서관 홈페이지(www.gbelib.kr/yd) 또는 전화(054-734-3106)로 문의하면 된다.

장문화/기자

제52회 강진 청자 축제

The 52nd Gangjin Celadon Festival

2024. FRI-SUN 2.23.-3.3.

### (주)한국수력원자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설명절 후원물품 전달

####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 사업을 통한 후원물품 전달

한국수력원자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에서는 지난 30일,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 사업은 총 2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걸쳐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의 경제에는 상생의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 사정으로 충분한 먹거리 수급이 어려운 취약

계층의 아동들에게는 신선식품을 제공한다는 두 가지의 좋은 취지를 모두 이 끌어냈다. 이번 후원을 받은 가족은 "신선한 육류와 과일을 먹을 수 있어 좋았다"며 "특히 직접 장을 봐 좋은 재료로 업선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경주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용/기자



### “대구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2024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

홍준표 대구시장,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주고 힘을 보태준 시민 여러분과 지역 기업에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져 우리 사회에 건강한 나눔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대구광역시시는 오는 2월 1일(목) 오전 11시, 구 중앙파출소 앞 사랑의 온도탑에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수학 회장 및 임직원,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대구광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4 나눔캠페인’ 폐막식을 갖고 대구시민과 함께한 62일간의 행복한 동행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집계 결과, 목표액인 106억 2천

만 원을 초과해 107억 1백만 원을 모금함으로써 사랑의 온도 100.8도를 달성했다. 이번 모금은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 속에 1월 중순까지만 해도 80도 대에 그쳐 최종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으나, 캠페인 기간 막바지에 지역 기업과 대구시민들의 놀라운 나눔 확산 에너지로 목표액을 달성하게 됐다. 이러한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에는 지역 기업의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 꾸준한 기부를 이어온 서봉재단은 지난해(10억 원)보다 많은 14억 원 기부로 대구에서 가장 큰 나눔을 실천했고, 한국부동산원(5억), DGB금융그룹(4억), 화성산업(2억), PHC크나무복지재단(2억), 엘앤에프(1억 3천)를 비롯해 삼보모터스(주), 삼익THK(주), 희성전자(주), (주)쓰리에이치, (주)서보, (주)맛찬들 등 지역 기업들의 1억 원 이상 통 큰 기부로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또한 이랜드리테일 동아백화점·NC 아울렛은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고, (주)리만코리아, (주)마담에이츠,

(주)코나 등도 1억여 원 물품 기부로 나눔을 실천했다. 지역 기업의 기부와 함께 개인들의 나눔도 이어졌다. 아너소사이어티, 나눔리더, 착한대구캠페인(착한일터, 착한가게, 착한가정, 착한시민)의 정기적 기부뿐만 아니라, 나눔리더에 가입한 경북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올해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의 군민들, 사회복지사 등을 비롯한 직장 나눔 참여와 익명의 기부자 등 다양한 계층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져 지역 사회에 큰 감동을 전해줬다. 이러한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온정의 힘으로 1월 31일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해 ‘희망2024 나눔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서도 ‘희망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고 힘을 보태준 시민 여러분과 지역 기업에 감사드립니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져 우리 사회에 건강한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평상시도 유사시처럼! 영등포구, 민방위 대피소 비상태세 갖춘다

비상사태 시 생존 확률 높일 수 있는 필요물품 비치...손전등, 응급 구급함, 자가발전 라디오 등

영등포구가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민방위 대피소 103개소에 비상용품함을 설치하고, 유사시 생존능력을 높일 수 있는 필요물품을 비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민방위 대피시설에는 만일의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구급함 등이 갖추어져 있지만, 이번 조치는 비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대피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공공기관, 지하철 역사,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위치한 지역 내 민방위 대피소 103개소이다. 구는 각 민방위 대피소의 수용 가능 면적을 고려하여 비상용품함을 설치하고, 견전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자가발전 라디오, 메가폰, 손전등, 응급 구급함 등 비상시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12개의 비상물품을 담는다. 비상용품함은 위기 상황에서도 바로

눈에 잘 띄일 수 있도록 벽면이나 출입구 등에 위치해 있다. 앞면에는 비상용품함을 나타내는 한글 표지판과 민방위 표시가 부착되어 있다. 특히 전기가 끊긴 어두운 상황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야광 스티커를 사용했다. 아울러 구는 비상시 구민들이 빠르게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표지판 점검도 실시한다. 대피소마다 출입구 위치를 확인하여 노후되거나 퇴색된 표지판을 교체한다. 또한 입구 주변에는 올바른 대피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 표지판’도 부착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편안한 가운데서도 위태로움을 잊지 아니한다는 안불망위(安不忘危)의 자세로 위험과 재난에 상시 대비하겠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은 구민 안전이다.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 성북구,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 위해 공사대금 30억 원 신속집행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서울 성북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30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 대금을 조기 지

급한다. 오랜 시간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구는 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선금의무 지급률을 적극 활용한다. 구가 직접 관리하는 공사현장은 37개, 약 406억 규모다. 구는 이번 설 명절 전에 지급될 공사대금 규모를 약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2월 2일까지 기성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6일부터 2주간 직접 관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 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며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원/기자

###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 아동 지원정책 확대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돌봄 공백 해소, 부모급여 인상 가정 양육부담 경감

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아동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은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우선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6300만원)을 투입해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그동안 평일에는 긴급한 사정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왔으나, 휴일에는 이용할 곳이 없었다. 시는 휴일어린이집 운영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월 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소를 최종 선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365일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올해 대폭 인상한다.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 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합친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합친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과 가입연령이 확대된다. 기존 가입 대상은 가정위탁아동, 시설입소아동, 기초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 아동이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중 추가·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이 추가되며, 가입연령은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대폭 확대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자녀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확대되며, 이 밖에도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도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올해 더욱 확대된 아동 정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아동친화정책 수립 시행으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내 고향 살리고 혜택도 받는

# 의성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쉬운 기부 지역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 **담례품 구입** → **지역 특산품 생산**

**세액 공제, 담례품 제공**

**10만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00%**  
**3만원 상당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담례품 제공**

- 기부한도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세액 공제 : ~10만원(100%), 10만원 초과~500만원(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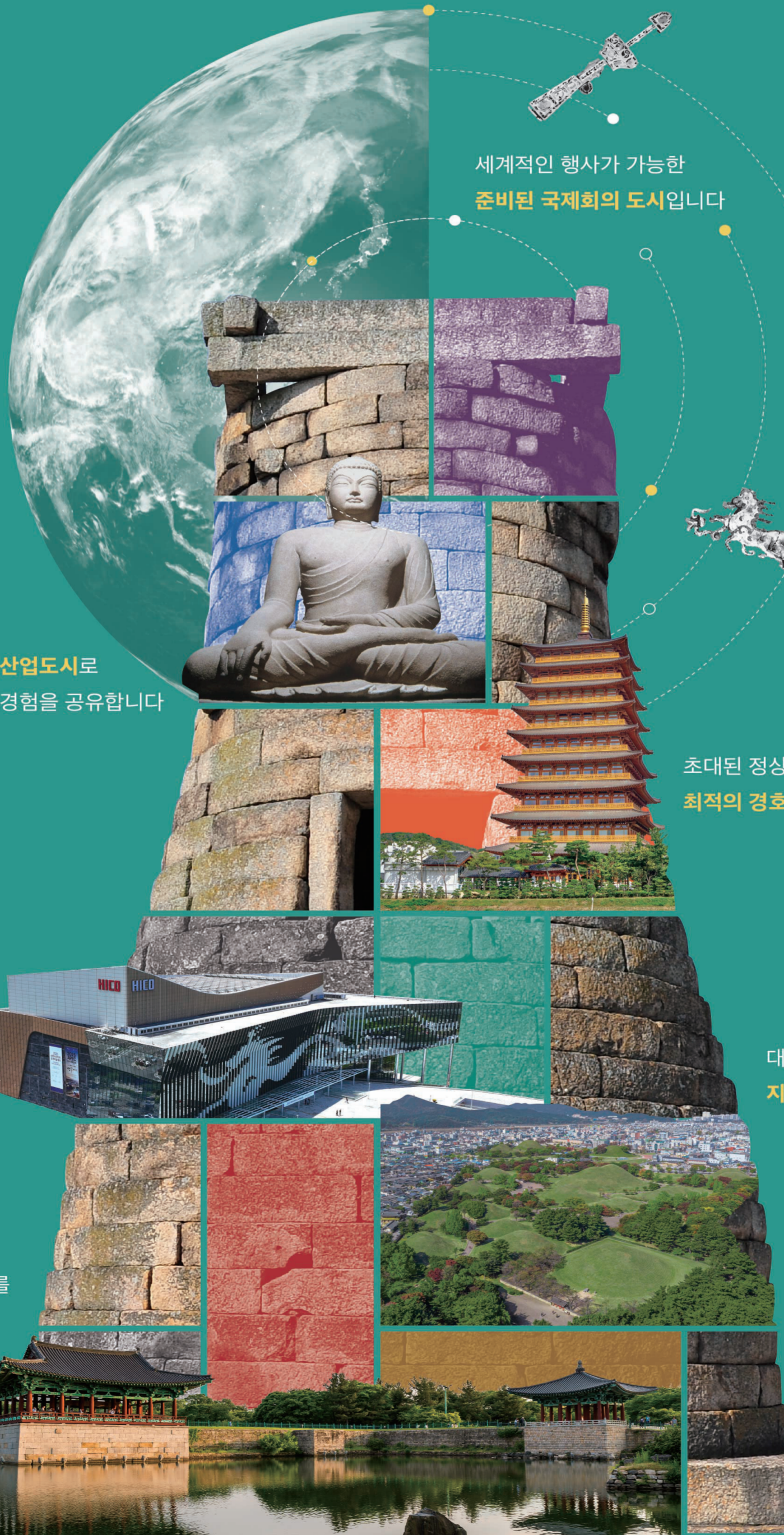
**의성군**



# 2025 APEC 정상회의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합니다



세계적인 행사가 가능한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입니다

클린에너지 중심 첨단산업도시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합니다

초대된 정상과 대표단을 위한  
최적의 경호·안전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포용적 성장과  
지방균형발전을 실현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입니다.

